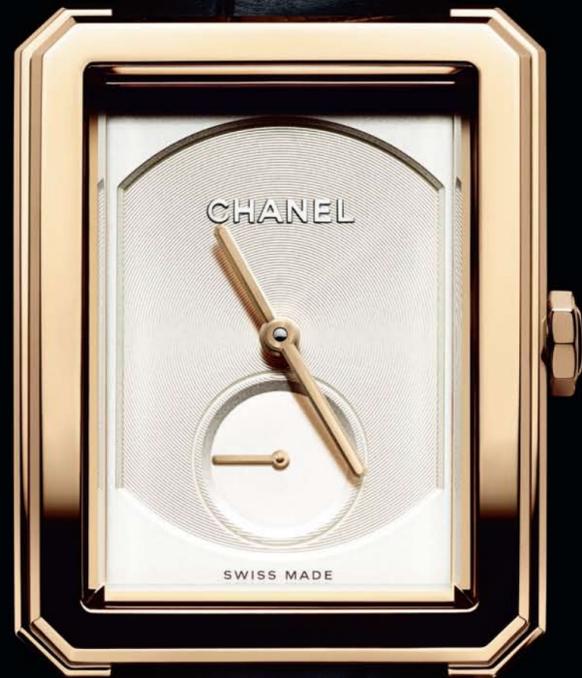




www.chanel.com



BOY·FRIEND

L'INSTANT
CHANEL
THE CHANEL MOMENT

Style

조선일보

SPRING 2016



Special
ISSUE

세계 시계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대형 박람회
2016 BASELWORLD

OMEGA



Seamaster
AQUA TERRA LADIES

Ω
OMEGA

청담 부티크 · 신세계 강남점 · 롯데 잠실점 · 현대 무역센터점 · 현대 목동점 · 현대 판교점 · 현대 대구점 · 현대 부산점

Style 조선일보 Special Edition



- 08 SHOW TIME** 2016년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 세계 최대의 시계 & 주얼리 박람회, 바젤월드에서 개최된, 시계와 주얼리 산업의 독특한 플랫폼인 바젤월드를 취재했다.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신제품 자체보다 스위스 시계 비즈니스에 대한 근본적인 화두가 던져졌다는 점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유통 시장에서 스위스 시계의 입지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진 2016 바젤월드 리포트.
- 12 HIGH COMPLETE** 매년 바젤월드에서는 어떠한 놀라운 기능의 시계를, 그리고 전보다 얼마나 더 복잡한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를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와 흥분이 가득하다. 작은 다이얼 안에 펼쳐진,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들의 놀라움과 독보적인 기술력의 경합.
- 14 IT'S MY TIME**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 기능, 그리고 브랜드의 노하우가 집약된 합리적인 오프라워치 워치.
- 16 SPORT SPIRIT** 남성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대담한 외관은 물론, 전문적인 기술력을 더해 브랜드의 명성을 잇는 스포츠 워치 컬렉션을 한자리에서 모았다.
- 22 REFINED CLASS** 수천원대에서 수억원대를 호가하는 제품 사이에서 부담 없는 가격에 매력적인 디자인의 패션 하우스 브랜드 워치는 바젤월드를 관조하는 색다른 묘미를 안겨준다.
- 24 TIME ART IN BASEL** 정밀함과 고귀함, 아름다움과 강렬함을 모두 담아 올해 바젤월드를 빛낸 스타 워치들.
- 38 BRILLIANT FANTASY** 바젤월드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시계의 메카니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곳의 진정한 묘미이자 하이라이트는 하이 주얼리 워치다. 기계식 시계에 훌륭한 광채와 아름다운 터치를 가미한 2016년 하이 주얼리 워치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한다.
- 40 A PASSION FOR ART** 바젤이라는 한 도시의 자국이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트 컬렉터와 세계 최대의 아트 페어인 아트 바젤을 탄생시켰다. 작은 도시 바젤에 조용하고 품위 있게 예술의 꽃을 피운 바이엘러 재단 미술관을 찾았다.
- 44 THE CONSTANT EVOLUTION** 바젤월드가 열리는 시계의 도시 바젤에서 기복으로 1시간 떨어진 바젤, 그곳에서도 수많은 시계 브랜드들이 모여 있는 발레리는 스위스 시계 역사의 시작이자 근본이 된 곳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성장해 현재 스위스 시계 시장을 리드하는 오메가의 공장 이 리뉴얼하면서 제작 공정은 새로운 분기점을 맞았다.

▶ SHOW TIME	08
▶ SPORT SPIRIT	16
▶ THE FIRST & NEW	18
▶ TIME ART IN BASEL	24
▶ A PASSION FOR ART	40
▶ THE CONSTANT EVOLUTION	44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우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원 어시스턴트 | 김수빈 광고 - 마케팅 | 박영화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인희 mhlee@chosun.com
 인쇄 - 재판 | 사법 |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인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아파트,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별예대전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FENDI TIMEPIECES



Punctually
Unpredictable

SELLERIA
Hand-crafted interchangeable straps.

News
ALL THAT NEW!

지난 3월 말, 스위스 바젤월드에서 첫선을 보인 시계들이 속속 서울에 상륙하고 있다.

(왼쪽부터) 론진과 그랑드 클래식 슬림한 스틸 케이스에 실용적인 퀴즈 무브먼트를 장착한 여성스러운 워치, **에르메스 아스트 36mm** 1978년 아이도르나기 디자인한 에르메스의 시그처 컬러인 아스트 칼렉션의 여성용 버전, **새해 화인 주얼리 J12** 미러 다이얼 센터에 화이트 라인을 칠하고 사파이어 크리스탈에 화이트 색으로 시계를 표면에 인장적인 느낌을 준다. **볼가리 베를라 루체아** 케이스 사이즈가 23mm에 불과한 작고 시련스러운 디자인의 여성용 스텐을 워치, 산뜻한 핑크 컬러 케이스를 세련된 옹두가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어준다. **에디터 베어전**



Issue
FABULOUS AUTOMATIC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기계식 시계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여성 시계에도 기능성을 부여한 제품이 부쩍 늘었다. 아름다운 외관을 갖춘 여성용 하이엔드 오토매틱 워치.

화려한 장식을 더한 여성용 오토매틱 시계가 2016 바젤월드를 풍성히 수놓았다. 먼저 브레게는 작년에 선보인 레인드 네이플 프린세스 미니 버전을 새 단장했는데, 기존 화이트 머더오프폴 다이얼을 라벤더 색상으로 물들인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여기에 베젤과 라그에 브릴라이트 컷 다이아몬드를 새겨, 이전과는 확실히 차별될 정도로 더욱 화려해진 것이 특징. 레인드 네이플 프린세스 미니 9818 워치는 칼라버 586/1 무브먼트를 장착해 38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예술적인 장식에 공을 들인 제품도 많았다. 볼가리는 예술가의 정원이라는 테마 아래 지상 낙원의 모습을 다이얼에 담아낸 루체아 일 자르디노 파라디소로 시선을 모았다. 투르비용 칼라버 BVL 263을 탑재한 이 워치는 청명한 하늘을 표현한 것 같은 블루 머더오프폴 다이얼과 장인이 직접 손으로 페인팅해 완성한 새, 무성한 이파리와 꽃, 그리고 6시 방향에 위치한 투르비용까지 한 폭의 그림처럼 잘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다. 올해 에르메스에서 소개한 '슬림 데르메스 밀 플러리 드 맥시'도 마찬가지. 15~16세기 테피스트리에서 착안한 문양을 자개 다이얼에 그려 넣고, 장인의 정교한 손동작으로 무려 20겹이 넘는 못빛과 90°C가 넘는 가마에 굵겨 여러 번 반복해 완성했다. 미묘한 생동감이 느껴질 만큼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이 시계는 에르메스 매뉴팩처 H1950 울트라 싼 무브먼트로 움직인다. **에디터 이지전**



Interview
마크 알렉산더 하이예크(Marc A. Hayek)

바젤월드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스위스 그룹에서 가장 핵심적인 브랜드인 브레게와 블랑팡의 수장, 마크 알렉산더 하이예크. 그가 바젤 데일리뉴스를 통해 스위스 현지에서 이야기한 브레게와 블랑팡의 미래.

올해 브레게의 새로운 시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올해는 혁신적인 시계방식 시계 제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한 해였습니다. '트라디션 미닛 투르비용(Tradition Minutes Tourbillon)'은 시계의 소리를 선정한 후 시계를 디자인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또 여성 워치에서 브레게가 선두에 서 있게 여성용 하이엔드 워치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전통과 클래식, 레인드 네이플 칼렉션에 사용한 최신 기술의 무브먼트까지 만족스러운 여성 시계를 선보였다고 자신합니다. **블랑팡 오션 카미트먼트의 역할은 무엇인지?** 1953년 최초 모던 다이빙 시계 피프티 파텀즈(Fifty Fathoms)를 출시한 이래 블랑팡은 해안의 보존에 기여해왔습니다. 저희의 노력은 블랑팡 DNA에 새겨진 근본적인 원리인 긍정적인 마인드와 장기적인 비전, 꾸준한 혁신에 따라 멋진 결과를 이루어냈고, 그 결과 블랑팡 오션 카미트먼트는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지리협회에서 진행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인 '블랑팡과 함께하는 청정해 바다 탐험(Pristine Seas Expeditions)'은 전 세계의 해양 보호 지역을 캠페인 이전의 2배인 300만km²로 늘렸습니다. 탐사 프로젝트 고펜세(Gombessa)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동물학 적 발견인 실라캔스의 비밀을 밝혀내기도 했고요. 블랑팡이 제작한 다쿠멘타리 필름과 수중 사진 전시 역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이 캠페인은 블랑팡의 DNA에 혁신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블랑팡의 핵심 제품을 소개한다면?** 올해 가장 주목할 것은 탄생 60주년을 기념하는 여성 클래식 선 레이디버드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가장 작은 리운드 무브먼트로 구동되는 이 시계는 1956년에 선보여 깊은 인상을 남겼고, 올해 다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남성 시계의 버전과는 다르게 여성들을 위해 특수하게 개발한 작고 안정적인 무브먼트를 장착했다는 점이 블랑팡만의 장점이지요. **에디터 베어전**



INSIGHT

2016 바젤월드를에서 취재한 최신 시계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ocus
THE RETURN OF KING

전설적인 시계들이 화려하게 귀환했다. 올해 바젤월드를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시계보단, 과거의 빈티지 워치를 오마주하고 브랜드의 역사적인 아이코닉에 집중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점이 다소 소극적인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하이엔드 워치 시장에서 바젤월드는 기계식 시계를 선보이는 역사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브랜드의 오랜 전통과 유산을 존중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은 그 어떠한 획기적인 도전보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올해 브랜드 창립 2백25주년을 맞이한 지라드 페리고는 하이엔드 워치 매뉴팩처의 기술력과 워치메이킹의 미학을 상징하는 **라 에스메랄다 투르비용**을 주력 시계로 소개했다. 유니크하고 미래 지향적인 이 시계의 가장 돋보이는 특징인 3개의 골드 브리지 투르비용은 무려 1백56년 전, 1860년 브랜드 창립자가 처음 개발한 기술이자 1889년 파리 국제박람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쓰리 골드 브릿지 포켓 크로노미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이를 보다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신제품 **라 에스메랄다 투르비용**은 2016년 더욱 강력해진 지라드 페리고의 기술력과 만나 60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가진 '쓰리 골드 브릿지 투르비용 오토매틱 칼라버 GP09400-0004'를 탑재했다. 스위스 시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명의 워치 메이커이자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 피텍 필름은 브랜드의 베스트셀러이자 성공적인 역사를 쓴 **해류일 캘린더 워치**의 출시 20주년을 기념한 특별한 시계를 선보인다. 1996년에 첫선을 보인 **해류일 캘린더 5035** 모델은 그 당시 '올해의 시계'로 선정된 피텍 필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타임피스다. 1년에 단 한 번, 2월에서 3월로 넘어갈 때 케이스 밴드에 있는 코렉터를 작동시켜 단 몇 초 만에 요일을 수정하는 독보적인 특허 기술을 담았다. **2016 피텍 필름 해류일 캘린더 5396**은 칼라버와 칼렉션의 클래식 라운드 형태의 독창적인 케이스 디자인에서 모티브를 얻었고, 다이얼 디자인은 옥션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낙찰되었던 1940년대 피텍 필름의 피텍주얼 캘린더 모델을 회상하게 한다. '롤렉스'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마.아.라.면, 역사적인 항공 워치인 오리지널 롤렉스 오이스터의 유산을 계승하는 **오이스터 피텍주얼 에어-킹**에 열광할 것이다. 오이스터 워치는 1933년에 휴스턴 등반대와 함께 극한의 기후 조건에서 에베레스트 산 위를 최초로 비행했는데, 이번엔 새로 출시한 에어-킹은 비행 역사에서 오이스터가 담당한 역할과 비행 선구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기념비적인 시계다. 40mm 케이스의 새로운 에어-킹은 운항 시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형 사이즈의 3시, 6시, 9시 숫자 표시와 도톰한 눈금 인덱스를 더한 블랙 다이얼이 돋보인다. 1950년대 모렐과 동일한 디자인의 'Air-King' 레터링을 새겨 이 전설적인 워치의 위상을 한껏 드러냈다. **에디터 권유진**





바젤월드기 개최되는 메세 바젤을 포함해 바젤 시내 곳곳을 누비는 트램. 바젤월드 기간 동안에는 브랜드의 움직이는 광고판 역할을 한다.



오메가, 롤렉스, 위블로, 불가리 등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들이 모여 있는 홀 1의 입구. 오픈 시간은 오전 9시, 15분 전부터 이곳을 입장을 기다리는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반대편 홀 2의 2층에는 글로벌 언론 기자들을 위한 프레스 센터가 마련되어 있다.



바젤월드의 또 다른 재미는 경이롭기까지 한 장인의 제작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블랑팡 부스에서 목격한 장인의 시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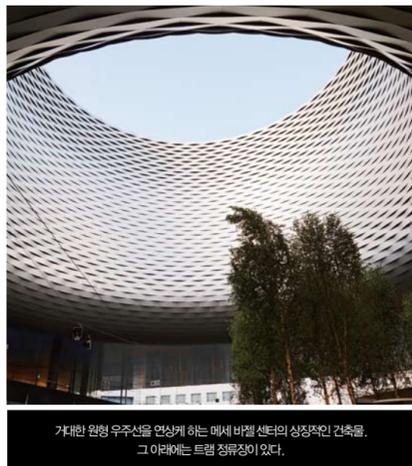
제너스는 올해 엘리프메로 36000 vph 클래식 카 출시를 기념해 제너스우버 택시 이벤트를 실시했다. 바젤월드 방문객을 클래식 카로 예스코트해주는 제너스다.



바젤월드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어 나가면 아름다운 라인강이 펼쳐진다. 한 해의 가장 큰 행사임을 상징하는 바젤월드의 깃발이 라인강의 물결과 함께 펼쳐진다.

show Time

2016년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바젤의 중심인 메세 바젤 센터는 축제의 현장으로 탈바꿈했다. 세계 최대의 시계 & 주얼리 박람회, 바젤월드의 뜨거운 분위기를 전한다.
photographed by koo eun 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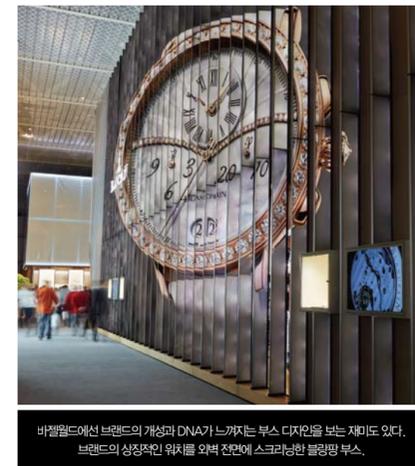
거대한 원형 우주선을 연상케 하는 메세 바젤 센터의 상징적인 건축물. 그 아래에는 트램 정류장이 있다.



이곳이 바로 축제의 현장을 증명하듯 바젤월드 입구 곳곳에서는 음악 밴드의 공연은 물론 브랜드에서 주최하는 이벤트가 펼쳐진다.



바젤월드는 무려 1천여개 기계 달하는 시계 및 주얼리, 원석 등 관련 브랜드들이 대거 참가한다. 이 기간에는 전 세계 각국의 바이어와 기자, 대중이 이곳을 방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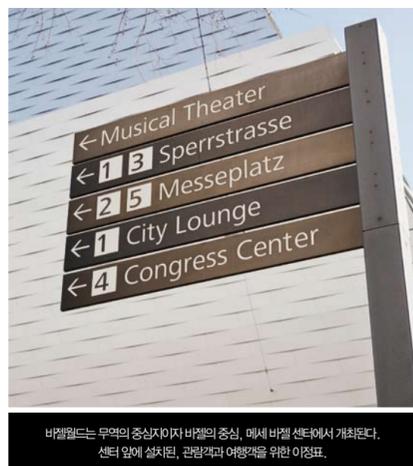
바젤월드에선 브랜드의 개성과 DNA가 느껴지는 부스 디자인을 보는 재미도 있다. 브랜드의 상징적인 위치를 위해 전례 없이 스크라방한 블랑팡 부스.



바젤월드는 무려 1천여개 기계 달하는 시계 및 주얼리, 원석 등 관련 브랜드들이 대거 참가한다. 이 기간에는 전 세계 각국의 바이어와 기자, 대중이 이곳을 방문한다.



바젤월드의 개최를 알리는 메세 바젤 센터의 주변 풍경. 오른쪽에 이곳의 상징적인 건물로 자리매김한 리미다 호텔이 보인다. 3월, 봄과 함께 시작되는 바젤월드를 찾는 방문객은 스위스의 아름다운 풍경까지 만끽할 수 있다.



바젤월드는 무려 1천여개 기계 달하는 시계 및 주얼리, 원석 등 관련 브랜드들이 대거 참가한다. 이 기간에는 전 세계 각국의 바이어와 기자, 대중이 이곳을 방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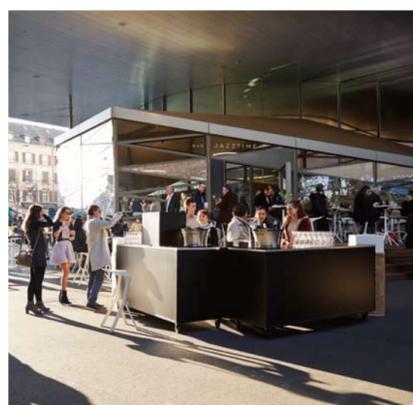
바젤월드의 중심에는 오메가가 있다. 홀 1 입구에 들어서면 정면 끝에 거대한 오메가 부스가 마치 이곳의 주인임을 암시하듯 자리 잡고 있다. 오메가 부스 앞에 설치된, 브랜드를 상징하는 로고로 만든 조형물.



스위스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 파텍 필립은 그들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부스 소관에 전시해 위용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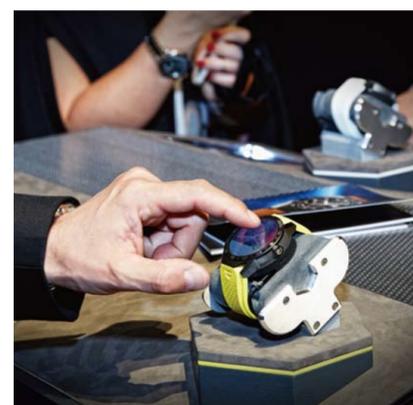


피에리오이라고 불리며 아름다운 디자인을 뽐내는 에르메스 부스에서 시계를 살펴보고 있는 관람객들.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로 접어들면, 카페테리아 앞에 심페인 부스가 설치되어 더욱 흥겨운 분위기를 만든다.

에디터 권유진



바젤월드의 중심에는 오메가가 있다. 홀 1 입구에 들어서면 정면 끝에 거대한 오메가 부스가 마치 이곳의 주인임을 암시하듯 자리 잡고 있다. 오메가 부스 앞에 설치된, 브랜드를 상징하는 로고로 만든 조형물.



바젤월드의 중심에는 오메가가 있다. 홀 1 입구에 들어서면 정면 끝에 거대한 오메가 부스가 마치 이곳의 주인임을 암시하듯 자리 잡고 있다. 오메가 부스 앞에 설치된, 브랜드를 상징하는 로고로 만든 조형물.



세계 시계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대형 박람회

2016 BASELWORLD

“바젤워드는 매년 전체 산업계가 한곳에 모이는 독특한 박람회입니다. 또 시계와 보석의 세계 자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박람회에서 드러나는 창조성에 영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순수하고 진정한 분위기에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스위스 전사위원회 회장 프랑수아 타이보(Francois Thiebaud)

혁신과 창조의 전달 창구, 바젤월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바젤워드를 생생하게 느끼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 박람회의 시스템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마치 파리과 밀라노에서 신상품을 선보이는 패션쇼를 개최하듯,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의 경계에 위치한 스위스의 무역 도시 바젤에서 시계 박람회 바젤월드(Baselworld)가 개최된다. 개최 기간은 대략 8일 내외로, 스위스 시계 브랜드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의 시계 브랜드(국내 브랜드로는 로만손이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가 한자리에 모여 신제품을 선보인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급 시계의 대명사 롤렉스, 오메가, 파텍 필립, 브레게 등은 물론 스위스 시계 브랜드의 상징인 대중 브랜드 스와치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다. 바젤워드의 두드러진 특징은 시계를 구입하려는 바이어부터 대중, 전 세계 프레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열린 시간을 보낸다는 점이다. 시계는 인테리아나 패션, 전자 제품과 달리 고급품으로 분류되기에 이렇듯 대형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스위스, 그리고 바젤이라는 도시의 시스템과 오랜 박람회 역사가 이를 가능케 했다. 사실 바젤은 시계 박람회와 더불어 아트 페어로도 유명한 도시다. 각종 박람회와 세계적인 미술관이 아주 작은 도시 안에서 세계적인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바젤월드 박람회장은 전시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해체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된다. 일종의 무대 세트를 해체하는 것처럼 박람회장 자체가 사라졌다 나타나는 것이다. 그 어떤 도시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매년 행사 기간이 되면 개최식이 개최되고, 부스들이 제자리를 찾고, 멋진 신제품을 선보인다. 그 안에서 한 해의 시계 생산량이 결정되고 국가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브랜드를 알리는 전사가 펼쳐지기도 한다. 바젤월드에서 시계만 선보이는 것은 아니다. 진주와 다이아몬드 같은 주얼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석부터 시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계까지 시계와 주얼리 산업 전반을 이루는 요소가 모두

모여 있다. 시계 산업을 넘어 유통 비즈니스의 좋은 예로 산업계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시스템이 뛰어나다. 장인들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꾸준한 선보일 기회가 없다면 고정적인 유통 판로를 개척할 수 없으니, 기계식 시계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전설적인 문화 유산이 되었을지 모른다. 이렇듯 바이어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우는 웅장한 바젤워드가 해마다 개최되기에 스위스 시계 비즈니스가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올해 바젤월드에는 70여 개국에서 4천 명에 달하는 프레스가 참석했다. 최초로 바젤월드 개막식을 생방송으로 중계해 전 세계 1만1천여 명의 기자들이 이를 시청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보다 널리 시계 비즈니스를 알릴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역시 이 박람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내밀하게 대를 이어 전승되던 시계 비즈니스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시계 산업의 가치와 혁신성, 창조성을 전하는 창구가 되는 것이 바로 바젤월드라 할 수 있다.

전 세계 시계 브랜드의 발전을 도모하는 킷틀 타워

매년 바젤워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이 박람회의 얼굴이자 매년 가장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매니저 디렉터 실비 리터(Sylvie Ritter)다. 바젤월드 오프닝 하루 전 열린 개막식에서 “한 해에 8일간 열리는 바젤워드는 시장 현황을 피부로 느끼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시계 산업의 중추신경입니다”라고 선언하며 행사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세계에 어떤 박람회도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시계 및 보석 박람회도 1백여 개국 이상, 15만 명의 관람객을 불러들이지 못합니다. 매년 1만3천 개의 일 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20억 스위스프랑의 경제적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도 대단한 점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정치 상황이 불확실하기에 스위스 시계 비즈니스가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만큼 바젤워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해의 예상과는 다르게 기계식 시계의 보다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스마트 워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전 세계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스위스 시계 비즈니스의 해법까지, 시장 자체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바젤월드 현장을 찾아보니 브랜드별로 신제품 수와 새로운 무브먼트를 발표하는 횟수가 적어졌지만, 품질과 매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오메가의 경우 품질 보증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시

스템을 새롭게 선보였다. 지난해 스위스 계속학연방학회(METAS, 메타스)와 협업해 보다 견고해진 인증 시스템을 선보인 데 이어 이를 증명하고 보증할 새로운 인증서를 완성한 것이다. 최고급 시계와 대중 브랜드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스위스 시계 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오메가의 행보는 여타 브랜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에 이는 매우 주목해야 할 이슈다. 바젤월드에서 가장 많은 신제품을 선보이는 오메가가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스위스 기계식 시계의 가치를 알리고 그 완성도를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품질 보증 서비스에 가장 큰 비용을 투자한다는 것은 스위스 시계 산업의 자존심과 속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발걸음이기 때문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을 감안해 브랜드별 아이템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CS 투자 비용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기에 시계 비즈니스는 지난해보다 더욱 진취적인 방향성을 띠고 있다고 느껴졌다. 브랜드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고객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제품 자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한층 까다로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브랜드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언평을 불문하고 그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계를 구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계는 한 사람의 특징과 스타일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수공예 예술 작품이며 그저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보다 누군가의 개성을 훨씬 더 많이 보여줍니다.” 오메가 회장 스티븐 우콕트(Stephen Urquhart)

기계식 시계의 가치와 디지털 기술의 공존

이렇듯 브랜드가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 바젤워드는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 워치가 기계식 시계 비즈니스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바젤워드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올해는 스마트 워치를 본격적으로 새롭게 출시한 눈에 띄는 브랜드는 없지만, 그 역할과 공존 방식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무브먼트를 개발하는 과정부터 고객 데이터 수집과 분석까지, 디지털 기술 없이 기계식 시계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디지털과 시계 비즈니스가 발걸음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바젤 시 주 의회 크리스토프 브루친

(Christoph Brutschin)은 오프닝 연설에서 “전 세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트렌드를 통해 시계 비즈니스도 새로운 산업화에 접어들었고, 더 많은 기회가 펼쳐진 것이 사실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연구에 활용하고, 새로운 소비자를 위한 상품 개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이러한 발전이 시계 제조 산업에 새로운 혁신과 창조로 이어지는 잠재력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수공업이 중심이 된 럭셔리 비즈니스에 디지털을 접목하는 것은 새로운 산업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브라이틀링에서 쿼츠 시계를 부활시키고, 태그호이어 역시 구글 시스템을 접목해 보다 활발한 인터랙티브 기능을 갖춘 스마트 워치의 특성을 담은 카넥티드 워치를 선보였다. LVMH 시계 그룹의 리더이자 태그호이어의 CEO인 장 클로드 비바는 “까레라 카넥티드 워치는 태그호이어 역사상 가장 큰 성공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낮은 가격대가 아님에도 출시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8만 개의 제품을 판매했지요. 이를 통해 저희는 태그호이어 까레라 카넥티드 워치가 스위스 시계 제조 역사에 남을 제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상했던 것보다 4배 이상에 달하는 수요에 맞게 공급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말입니다. 물론 스마트 워치 역시 스위스의 기술력과 모던하고 정교한 디자인이 핵심 요소이기에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스마트 워치 시장이 더욱 뜨거워질 것을 언급했다. 태그호이어 같은 대형 브랜드에서 꾸준히 이 영역을 발전시킬 것임을 밝혔기에 내년 바젤월드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맞는 다양한 브랜드의 스마트 워치가 출시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디지털이 불러온 급격한 변화와 요동치는 세계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유의 가치를 지키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스위스 시계 비즈니스의 핵심 바젤월드, 8일간 전 세계 시계 시장의 중심임을 선언하고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비전을 제시하는 박람회는 마치 생물과 같이 살아 움직이고,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비롯된 트렌드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2016 바젤월드에 주목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람회를 채우는 시계 브랜드와 바이어, 대중, 바젤워드를 이끄는 리더는 시계의 진정성에 감동하고 시계 산업이 향해야 할 방향을 진지하게 탐구한다. 시계 산업의 창조성과 진정성을 모두 담고 있는 바젤워드의 현장, 시계 시장의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들이 지금 펼쳐진다. **S** 에디터 배민관/바젤 현지 취재

Among The Greats

바젤월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브레게 부스. 올해 역시 브랜드의 히스토리를 아우르는 전시와 드라마틱한 여성 하이 주얼리 워치, 고유 기술력을 담은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로 자력을 과시했다. 스위스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대표 주자 브레게가 2016년에 내딛은 새로운 발걸음.



기계식 시계의 역사를 쓴 컬렉터들, 위대한 브레게 스토리를 만나다

가장 먼저 올해 바젤월드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시계 역사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브레게의 전시다. 바젤월드 1층에 위치한 메인 홀에서 개최된 이번 전시는 1787년부터 현재까지 브레게 시계의 스토리와 전통을 알 수 있는 가치 있는 기록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브레게의 고객은 유명 인사, 왕, 왕비, 작가, 정치인, 작곡가 등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연대기를 품고 있다. '위대함 속의 브레게 스토리'를 세심한 부분까지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고안한 전시인 것.

1775년 이래로 유명한 고객들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킨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Abraham Louis Breguet)는 시계를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은 물론,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의 작품에 브레게를 인용한 경우가 있을 정도로 시대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브레게 역시 아름다움과 문화적인 이야기, 럭셔리한 묘사, 역사적인 인물을 타임피스에 그려내며 시대에 화답했다. 이러한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의 정신을 이어받아 현대에도 브레게 브랜드 역사에 기여한 사람들과 브레게에 중요한 영감을 제공한 사람들을 기록하는 물품을 전시하는데, 이번 전시 역시 같은 맥락이다. 브레게에 가장 열렬히 찬사를 보냈던 마리 앙투아네트부터 나폴레옹과 그의 가족, 조아키노 로시니, 윈스턴 처칠 등에게 경의를 표하며 전시장에서 이들의 이름과 함께 시계를 선보였다. 역사 속 인물들을 직접 만든 시계와 매치해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는 드물다. 그렇기에 시계의 아버지라 불리는 브레게의 긴 시계 역사가 빛나는 것이고, 올해 역시 이 유구한 가치를 이을 최고의 위치만을 선보였다.

2016 브레게, 소리에 집중하다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제품은 '트래디션 미닛 리피터 투르비옹'이다. 최고의 하이 컴플리케이션으로 분류되는, 소리 나는 시계를 상업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더 아름다운 소리와 정확한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리서치와 그 결과를 통해 완성한 것이 바로 이 워치다. 혁신적인 사고방식으로 시계 기술의 다양성을 탐구하는 브레게는 최고의 소리를 만들고, 그에 걸맞은 시계를 탄생시켰다. 지난해 프로토타입으로만 출시한 '트래디션 미닛 리피터 투르비옹 7087'에 소리를 내는 기능을 향상시켜 올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보인 것. 일반적인 미닛 리피터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새로운 구조를 제안한 것은 물론 6개의 특허까지 획득해 그 가치는 더욱 높다.

기존 미닛 리피터의 경우 보통 케이스 백을 쳐서 공명 효과로 시간을 알려주는데, 이미 1783년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는 시간을 소리로 알려주기 위해 무브먼트 주위를 감싼 금속 외아어, 즉 공 스프링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브레게 매뉴팩처는 이 위대한 기능을 이어받아 다시 한 번 미닛 리피터 구조를 변경하는 데 도전했다. 트래디션 미닛 리피터 투르비옹

은 독특하게도 소리를 먼저 결정할 후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경우다. 이는 극도로 아름다운 소리를 현실화하기 위한 브레게의 독특한 아이디어이다.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이라는 말로는 부족함이 위치는 특별히 고안한 소리 생성기(sound generators)가 그기를 쥐고 있다. 20만 개 이상의 주파수 배합을 실험한 후 결정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즉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온 최종 결과에 맞춰 시계의 구조와 개발 내용을 결정하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한 것. 이렇게 위대한 메카니즘 속에서 탄생한 트래디션 미닛 리피터 투르비옹은 기존 미닛 리피터 시계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공 스프링과 소리를 치는 해머의 힘을 약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세미-액티브 버퍼(semi-active buffer), 소리를 오래도록 지속하게 만드는 로동 플레이팅까지 다양한 기법을 도입했다. 소리를 내는 공의 고정 방식도 독특한데, 케이스에 단단하게 고정하면 소리의 진동이 작아지고 주파수 전달 능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케이스에 부착된 3개의 기둥이 공을 고정하고, 이 기둥 사이 공간을 활용해 공이 진동하기에 소리가 더욱 풍성해진다. 실제로 알람을 위해 이 기능을 사용할 이들은 거의 없겠지만, 시계 기술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이유로 시계 매니아, 최고급 기술인 미닛 리피터를 적용한 시계를 소장하길 원하는 컬렉터에게는 올해 바젤월드에에서 가장 인상적인 시계임이 분명하다.

하이 컴플리케이션을 장착한, 아름다운 브레게 여성 워치

브레게의 새로운 제품 중 모두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여성 컬렉션이다. 기계식 워치의 가치와 외형적 아름다움, 보석으로서의 소장 가치까지 모두 갖춘 것이 브레게의 여성 워치이기 때문이다. 남성 워치의 대명사인 트래디션과 클래식 컬렉션부터 국내 여성들 사이에서 수직 대상이 된 레인드 네이플 컬렉션, 이에 어울리는 우아한 디자인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에 이르기까지 마리 앙투아네트가 사랑한 브랜드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타 브랜드에 비해서도 풍성한 제품을 선보이기에 기대가 큰데, 이중 올해 가장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펠 임페리얼, 나폴레옹의 아내였던 조세핀 황후에게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올해 첫선을 보인 여성 워치로 시각적으로 드라마틱한 매력을 선사하는 특별한 워치다. 정교한 무브먼트를 품은 이 워치의 인상적인 디자인은 독보적인 마력을 갖춘 레인드 네이플 워치만큼이나 신선하다. 타임리스한 우아함이 돋보이는 클래식 워치에 문페이스를 더한 '클래식 문페이스 단모 9088'의 기품 있는 아름다운 눈길을 사로잡는다. 2백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브랜드의 대표 제품으로 자리 잡은, 클래식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은 제품으로 부드러운 화이트 컬러의 그랑 피에넬 기법을 활용한 다이얼을 매치해 가치를 높였다. 블루 스틸 시침과 분침으로 구성된 브레게 핸드, 로마 숫자 인덱스는 아이코닉한 무드를 자아낸다. 셀프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 칼리버 537L을 장착한 것 또한 브레게만의 가치를 드러내는 요소다. 문의 02-3479-1008 에디션 배머인



1'소리의 크기와 상을 향상시켜 무려 6개의 특허를 획득한 트래디션 미닛 리피터 투르비옹 7087. 20번 바젤월드 기간 동안 컬렉터들의 주목을 받은 브레게 부스. 3 다이얼에 드러난 무브먼트 부품이 돋보이는 트래디션 단모 7038. 4 6시 방향에 위치한 청을 통해 스물 세컨즈와 문페이스 기능을 얻을 수 있는 '클래식 문페이스 단모 9088'. 5 '베젤을 따라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장식하고, 6시 방향에 러그 대신 영롱한 진주를 세팅, 희롱한 자태를 뽐내는 '펠 임페리얼 하이 주얼리.



high Complete

기계식 시계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아름다운 가치와 하이엔드 워치메이킹 기술에 대한 경의심이 배가된다. 매년 바젤월드에에서는 어떠한 놀라운 기능의 시계를, 그리고 전보다 얼마나 더 복잡한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를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심과 흥분이 가득하다. 작은 다이얼 안에 펼쳐진,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들의 놀라움도 독보적인 기술력의 경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메가 글로브마스터 마스터 크로노미터 뉴뉴얼 컬렉션 오메가 코-엑시절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822를 탑재한 글로브마스터 워치의 뉴뉴얼 컬렉션 버전. 한층 하는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41mm의 사이즈로 진화한 새로운 케이스, 오메가만의 아름다운 고안체인 파이팬 다이얼을 더한 다이얼, 세련된 블루 컬러로 포인트를 준 다이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특히 돋보이는 점은 입체감 있게 디자인한 파이팬 다이얼 위에 월 표시 기능을 적용한 것. 배니싱 차란 블루 컬러 핸드 필을 표히하게 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였다. 베젤은 스크래치에 강한 탄성 티타늄으로 제작했고, 인덱스와 시침, 분침은 슈퍼루비노와 코발트로 마무리했다. 문의 02-511-5197

볼가리 세르펜트 인모티브 투르비옹 과거엔 손목을 감싸던 볼가리의 매혹적인 시그니처인 세르펜트가 올해 바젤월드에선 라운드 워치 케이스를 둘러싸며 새롭게 탄생했다. 이는 전체를 스텔레온 작업한 수동 매뉴팩처 투르비옹 칼리버 209의 멋진 프라임이 되어 복조화면서도 우아한 무브먼트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메인 플래이트와 브리지는 화이트 골드로 제작했고, 측면은 스테이트 그레인 7립 및 안베링 폴리싱 과정을 거쳐 완성했다. 64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고 30m 방수 기능 또한 갖추었

다. 총 2백9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총 1.97캐럿의 루벨라이트 2개를 세팅한 18K 핑크 골드 버전은 50파스, 총 2백2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1개의 0.15캐럿 사파이어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버전은 30파스 한정판으로 판매한다. 문의 02-2056-0172

브레게 트래디션 단모 7038 브레게 트래디션 컬렉션의 하이엔드 워치메이킹 기술을 고스란히 담은, 오직 여성을 위한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 워치. 메인 플래이트에 거의 모든 무브먼트의 부품들이 노출시킨, 모던하면서도 그래픽적인 구조가 돋보인다. 센터 밸런스 12시 방향에 정교하게 얹힌 타성 패드를 새긴 티타늄 소재 다이얼이 특징. 4시에서 8시 방향으로 뻗어 나간 형태를 이루는 밸런스 휠, 중간 휠과 함께 이스케이프먼트를 탑재한 브리지는 세 밸런스 부분을 총괄해서 보호해주는 브레게의 또 다른 발명품인 파라슈트를 발견할 수 있다. 또 10시 방향 무브먼트 위에는 레트로그레이드 세컨드를 인그레이빙해 특별함을 더했다. 여성만을 위해 디자인했기 때문에 기존 트래디션 컬렉션에서 볼 수 있었던 언 크라이, 로즈 골드 컬러의 무브먼트 대신, 신비로운 화이트 컬러 무브먼트가 약 0.885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돋보인다. 문의 02-2118-6480

그라프 마스터 그라프 파페주얼 컬렉션 고도로 복잡한 시계 제작 기술과 눈길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디자인을 모두 갖춘 이 혁신적인 시계는 주얼리이자 하이엔드 워치메이킹 기술을 갖춘 그라프의 자력을 느낄 수 있는 마스터피스다. 제작 난이도가 높은 파페주얼 컬렉션 컴플리케이션 기능을 더한 이 시계에는 단 7.72mm 두께의 독자적인 무브먼트인 그라프칼리버 7을 탑재했다. 더불어 윤년 표기 기능을 포함해 2100년까지 날짜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 오픈워 크로 디자인된 다이얼에서는 요일, 월, 일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마치 바다 수평선에 놓인 것처럼 나뉘어 미적인 효과를 선사하고, 날짜 표시 상부와 주변 다이얼 부분을 반투명의 특수 레진으로 제작해 시계 내부의 모습을 보일 듯 알 듯 신비롭게 표현했다. 또 6시 방향에는 60초에 1회 회전하는 투르비옹의 움직임을, 뒷판을 통해서도 상정적인 그라프 로고와 새긴 22K 골드의 정교한 로터를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2-2256-6810

자이더 패리코 라 에스캐마다 투르비옹 올해 총 2백25주년을 맞이해 선보이는 투르비옹 워치. 1860년 최초의 스프리틀리 투르비옹을 개발한 워치메이커 콘스탄트 자이더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1889년 파리국제박람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투르비옹 스프리틀리 로지 포켓 크로노미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다이얼 위에 드러난 3개의 칼리버와 인베트 있는 투르비옹 브리지는

받길 수 없는 하이엔드 워치 매뉴팩처의 기술력과 더불어 그저 기술적 매카니즘으로만 여겨졌던 투르비옹 자체를 미학적인 영역으로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화살 모양을 연상시키는 브리지 디자인은 브랜드의 상징적인 포켓 워치인 라 에스캐마다의 스프리틀리 로지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 스프리틀리 로지 골드 브리지를 오트메터 칼리버 GP3400-0004를 탑재했으며, 로터를 배열 아래에 장착된 독창적인 구조 덕분에 48시간인 파워 리저브를 60시간으로 늘렸다. 문의 02-3467-8372

제너스 아카데미 무브먼트 조르주 피에르 자코 제너스의 설립자인 조르주 피에르 자코의 이름을 본뜬 제너스 인공 브랜드의 전통적인 가위와 하이엔드 워치메이킹 노하우, 기술력을 담아 1백50파스 한정판으로 선보이는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 시계의 상징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다이얼을 통해 제너스 엘 프리메로 4805 매뉴얼 무브먼트에 최초로 장착된 투르비옹과 정화한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 배열 등에 긴간 체인을 일정 속도로 풀리게 하는 퓨지언드 체인 트랜스미션을 직접 볼 수 있어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로서의 자부심이 드러난다. 백 케이스는 투명한 무브먼트 크리스탈로 제작했고, 핸드와 이워 마크는 루비로 코팅한 슈퍼루비노-비콘, 스텔레온 블랙 라퍼로 만들어 블랙 세라믹 케이스 워치의 외관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문의 02-2118-6225 에디션 권유인



(왼쪽부터) **타소 트래디션 오토매틱 오픈 하트** 오픈 하트라는 제품명처럼 12시 방향에 시계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무브먼트가 드러나는 스텔레온 형식의 다이얼이 특징이다. 행사가 부드러운 케이스, 고풍스러운 다이얼 디자인이 돋보이는 이 워치는 스텔레온 스틸, PVD 코팅으로 로즈 골드 컬러를 입힌 스텔레온 스틸 모델 등으로 선보인다. 문의 02-543-7685 **라도 하이퍼리플 1616** 1971년에 출시한 라도의 빈티지 컬렉션 중 하나인 케이스 혼을 재해석한 바진 오픈하트 모델보다 한층 커진 자름 46mm 케이스에 다이얼과 인텍스는 원래 모습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6시 방향 창을 통해 오일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 80시간까지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문의 02-3213-4168 **미도 바르셀리 해리제지** 바르셀리 상의 신고전주의 건축물인 '발라노 갈라리아 비트리오 오페라-엘 피'의 세련된 이탈리아 전통 건축양식에서 영감을 얻어 완성한 라인, 시계 브랜드 중 가장 얇은 6.95mm의 두께가 특징이며, 워터메이킹의 전통 기법에 따라 제작한 블루 스틸 초침을 장착했다. 문의 02-3149-9599 **론진 레인로드** 1960년대 철도원들이 착용한 시계에서 영감을 받아 선보인 레인로드 컬렉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 직경 40mm의 스틸 케이스에 빈티지한 크림 컬러 다이얼을 매치했으며, 그 위에는 철도(rail road)에서 따온 라인과 무브먼트 L888, 2 오토매틱 와인딩 칼리버를 장착했다는 의미의 '888'을 함께 각인했다. 문의 02-3149-9532

스물 일곱 세이퍼(070-4656-0175)

it's my Time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 기능, 그리고 브랜드의 노하우가 집약된 합리적인 가격대의 오토매틱 워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해리제지 카키 네이비** 과거 해리제지가 미 해군의 잠수 공격병을 위해 만든 다이버 워치에 뿌리를 둔 제품으로, 100m 방수 기능을 갖추었다. 직경 46mm의 커다란 다이얼이 돋보이며, 슈퍼루미노바 코팅 처리한 시계바늘, 색의 대비를 통해 가독성을 높였다. 문의 02-3149-9593 **미도 오션스타 캡틴 스텔레온** 단일 방향으로 회전하는 베젤과 200m 이상의 방수 시스템을 적용했다. 화이트 슈퍼루미노바 인텍스와 3시 방향에 위치한 오일과 날짜창, 38시간 지속 가능한 파워 무브먼트로 고급스러우면서도 안정적인 활동을 돕는다. 문의 02-3149-9599 **라도 하이퍼리플 울트라 라이트** 브랜드 역사상 가장 가벼운 무게를 자랑한다. 항공 우주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도 높은 초경량 소재인 실리콘 나트라이드 세라믹 케이스에 나토 스트랩을 매치해, 실제 착용했을 때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것이 장점. 문의 02-3213-4168 **에디터 권유진, 이지연**

BLANCPAIN

Innovation in Heritage

1735년 스위스 유라 산맥의 작은 마을 블랑페에서 탄생한 블랑팡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시계 브랜드다.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항상 창의적인 시계를 선보여온 블랑팡은 이번 2016 바젤월드에서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룬 제품을 선보였다.



수 있어 편리하다는 점 또한 이 시계의 장점이다. 1956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원형 시계, 그것도 쿼츠가 아닌 기계식으로 세상에 공개된 시계가 바로 블랑팡의 여성 컬렉션 레이디버드였다. 고작 자름 11.85mm 사이즈에 40시간에 이르는 파워 리저브를 자랑했으니,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밖에. 이후 워터안 손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된 레이디버드는 해가 갈수록 진화를 거듭하며 까다로운 여성들의 인목을 만족시켜왔다. 올해는 탄생 6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변주를 보여주었다. 그중 눈에 띄는 아이템은 단연 6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의 레이디버드 울트라 슬림. 자름 15.7mm에 새로운 오토매틱 무브먼트 6150을 심장에 꼽았고, 자재로 정교한 나뭇잎 패턴의 다이얼을 완성했다. 스트랩은 루이비통과 악어 가죽 중에서 도블의 무늬가 진전된 것만 골라 수작업으로 만들고, 베젤에는 32개의 다이아몬드, 다이얼 표면에는 8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보석을 향한 여성들의 요구 또한 충족시켰다. 뿐만 아니라, 백 케이스의 로터에도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작은 것 하나에도 큰 만족감을 느끼는 여성들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 듯 보였다.

전설의 복각, 피프티 퍼펙트 바티스카프
1950년대 후반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첫선을 보인 다이버 워치 '바티스카프'는 탄생 60주년을 맞은 2013년, 최초의 모델을 복각한 뉴 워치 컬렉션으로 돌아왔다. 이름하여 '피프티 퍼펙트 바티스카프'. 올해는 깊은 바닷속 푸른빛을 연상시키는 딥 블루 컬러의 '피프티 퍼펙트 바티스카프'를 내놓아 다시 한 번 눈길을 끌었다. 그레이 플라시마 세라믹 소재의 케이스에 블루 컬러의 세라믹 인텍스를 삽입해 매력을 배가한 것. 다이버 워치인 만큼 시계 빈대 방수으로 회전하는 다이얼 베젤과 300m 방수 기능을 갖추었으며, 카터란 초침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 잠수 중 시계가 작동하는 것을 안착할 수 있다. 무브먼트 안에 3개의 스프링 베일을 탑재해 5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능케 했고, 무브먼트의 밸런스 스프링은 실리콘으로 만들어 가볍고 충격에 강한 동시에 자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시계에 탑재된 칼리버 1315는 합금 소재라 부식에 강하고 온도에 따른 팽창이 적어 시간 오차 감소에 기여한다. 이는 곧 시간의 정확성과 무브먼트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완벽한 다이버 워치를 구현하기 위해 고품질한 블랑팡의 노고를 읽을 수 있다. 블랑팡은 오랜 시간 '메티에 다르' 기법에도 공을 들여왔다. 그만큼 탁월한 노하우를 쌓이온 브랜드 중 하나로 구리와 골드의 합금인 '사쿠도' 소재까지 개발했다. '사쿠도'가 내쉬 워치는 자체 채굴한 고급 시계 부품의 공예 부문에서 수장했을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에 블랑팡 '메티에 다르' 스텔레온과 공정한 블랑페 더 빅 웨이브는 파도의 움직임을 모티브로 했다. 일본 예술가 호쿠사이(Hokusai)의 작품 '가부키'의 큰 파도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블랑팡이 최초로 사용한 '메티에 다르' 특색에 블랑팡이 즐겨 사용하는, 일본에서 비롯된 로쿠쇼(rokucho) 기법을 적용해 완성했다. 플래티넘 케이스 위에는 오로지 파도 테레일과 비늘만 자르며 파도의 역동적인 모습을 더욱 부각했다. 코팅, 공력, 인그레이빙 작업을 거쳐 완성된 은빛 혹은 흑색 소재의 파도는 다이얼 각도에 따라 산티모로 컬러를 발산하며 일렁이는 물결을 떠올리게 한다. 빌라레 더 빅 웨이브는 심리적 우아함에 초점을 맞추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 요소까지 갖췄다. 블랑팡의 대표작인 핸드와인딩 무브먼트 13R0 칼리버를 개조해 완성한 13R3A 무브먼트를 새롭게 장착했고, 3개의 베일이 89칸의 파워 리저브를 보장하기 때문. 이 정도면 스페셜 피스를 모으는 전 세계 컬렉터들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을까. 문의 02-3467-8426 **에디터 배민진**

가장 오래된 워치메이킹 브랜드, 블랑팡
바젤월드에서 가장 붐비는 부스를 꼽으라면 단연 블랑팡이다. 기계식 시계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전문가들과 바이어는 물론 일반 대중도 블랑팡에 대한 관심이 높다. 클래식 워치부터 다이버 컬렉션, 이름디온 여성 워치까지 다양한 컬렉션을 선보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올해로 탄생 2백31주년을 맞이한 블랑팡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워치메이킹 역사를 자랑한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전차식 쿼츠 시계를 거부하고 기계식 시계만 고집해온 블랑팡은 바젤월드에서도 역사적인 컬렉션과 혁신적인 메카니즘을 동시에 선보이며 그 저력을 입증했다. 우수한 브랜드에 완성도 높은 무브먼트를 공급하는 것 역시 블랑팡의 역할이다. 30분의 시간 오차가 발생하는 대륙을 위한 하트 타임존 워치, 투르바옹부터 마트 리피터, 페페추얼 캘린더에 이르기까지 등 마스터 피스에 탑재하는 여섯 가지 기능 모두를 하나의 시계에 집약시킨,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워치 '1735' 등이 그것. 블랑팡은 언제나 그렇듯 시계 장인이 직접 부스에서 무브먼트를 제작하는 과정을 시연했고, '메티에 다르' 컬렉션을 위한 공예의 작업 모습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블랑팡의 시작점이었던 마을의 이름이자 대표 컬렉션인 '블랑페의 뉴 모델'부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블랑팡이 개발한 최초의 빈티지 모델 '다이버 워치 피프티 퍼펙트', 세상에서 가장 작은 원형 무브먼트를 탑재한 '레이디버드' 워치의 탄생 60주년을 기념한 워치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해 주목받았다. 기존 컬렉션에 심세하고 독창적인 미학을 가미한 제품을 내놓은 블랑팡은 블랑페 에뉴얼 캘린더 GMT 모델의 첫 스틸 버전을 통해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워치 마니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의지를 내비쳤다.

개했다. 스텔레온 스틸 소재의 '블랑페 에뉴얼 캘린더 GMT'에 블랙 악어가죽을 매치해 클래식한 매력을 더함으로써, 보다 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계다. 40mm 사이즈로 다이얼 2시 방향에는 요일, 3시 방향에는 날짜, 4시 방향에는 월을 나타내는 인디케이터를 순서대로 배치했고, 8시 방향에는 24시간 단위로 표시하는 GMT(사건드 타임존) 기능을 달았다. 투명한 사파이어 백 케이스를 통해 기묘세 문양의 옐로 골드 로터가 담긴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6054F의 상세한 움직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에뉴얼 캘린더인 만큼 1년에 단 한 번 2월 말(28일이나 29일)에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계 케이스의 리그 아래에 자리한 블랑팡 특허 기술의 언더-러그 코레터가 장착되어 있어 별도의 도구 없이 손끝으로 각종 기능을 세팅할

1,2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꾸민 블랑팡 부스. 3 블랑팡의 시계 장인이 부스를 직접 방문해 무브먼트를 만드는 과정을 선보이고 있다. 4 세계에서 가장 작은 무브먼트로 불리는 자름 15.7mm의 초소형 오토매틱 무브먼트 6150을 탑재한 레이디버드 울트라 슬림. 5 스틸 케이스로 처음 선보이는 '블랑페 에뉴얼 캘린더 GMT'. 6 플라시마 공법을 적용한 그레이 세라믹 소재로 한층 세련된 '피프티 퍼펙트 바티스카프'. 7 클래식한 워치 디자인에 파도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구현해 새로운 비전을 보여준 '블랑페 더 빅 웨이브'.



한정 시계 권유



Heritage Pilot Café Racer

제니스 헤리티지 파일럿 카페 레이서

192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카페 레이서는 말 그대로 카페에서 카페까지 달은 가리를 빠르게 오가는 일종의 모터 사이클 스포츠다. 바이어들의 빠르고 거친 움직임을 담은 헤리티지 파일럿 카페 레이서 워치는 거친 결이 보이는 검은 화석 장면에 숫자와 시침, 분침을 모두 아랍 차라에 파일럿 컬렉션의 정체성을 한층 강조했다. 녹색 누백 가죽으로 제작한 스트랩, 타타늄 핀 버클은 시계의 빈티지함을 돋보이게 한다. 수심 100m의 수압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했다. 문의 02-3273-9034



Seamaster Pyeongchang 2018
오메가 시마스터 이쿠아 테라
평창 2018 리미티드 에디션
1932년 LA 올림픽부터 지속적으로 올림픽 공식 타임퍼머 역할을 수행해온 오메가에서는 이번 평창 2018 동계 올림픽을 2년 앞둔 현재, '2주년 카운트다운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타임퍼머를 선보인다. 바로 이쿠아 테라 150m 잠수용 오리지널 디자인에 올림픽의 상징인 오메가 마크와 가지 아이코닉한 컬러를 사용해 'PYEONGCHANG 2018' 글씨를 새긴 것이 그것. 올림픽이 열리는 연도를 기념해 2년 18개월만 한정 수량 출시한다. 문의 02-511-5797



L O N G I N E S

로온 라이프스타일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점도 눈길을 끈다. 론진은 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브랜드 중 하나다. 1878년 기수와 말을 새겨 넣은 크로노그래프 위치를 생산하면서 본격적으로 말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스위스 순수 혈통의 말 품종 프라이베르거가 론진의 시작점이자 스위스 시계 제조의 뿌리를 두고 있는 유라 지역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퀘스트리안' 위치는 바로 그 프라이베르거의 골레 비를 장식에서 영감을 얻은 모델이다. 가로 22mm, 세로 32mm의 스틸 케이스에 한 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퀴즈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실버 톤 커브드 패턴 다이얼에 다이아몬드 인덱스, 블루 스틸 핸즈로 구성된 스틸 브레이슬릿 버전, 블랙 래커 다이얼에 다이아몬드 인덱스와 로듐 도금 핸즈로 꾸민 브라운 레더 스트랩 버전, 실버 컬러의 플린케 다이얼을 로마자 블루 스틸 핸즈로 장식한 브라운 레더 스트랩 버전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국제 경마 대회의 후원자이자 공식 타임키퍼로 활약하는 론진의 말을 향한 한결같은 애정, 그리고 말의 역동성과 정중함을 고스란히 담은 컬렉션이라 하겠다. 한편 1992년 처음 론칭한 이후 여성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라 그랑 드 클레식 이 사랑스러운 컬러를 머금고 돌아왔다. 머더오브펠 다이얼 위로 화이트, 핑크, 스카이블루 컬러의 별 모티프가 자리해 시간을 확인할 때마다 달콤하고 화사한 기분이 전해진다. 게다가 시계의 두께는 겨우 4.2mm와 4.45mm. 보기에도 얇고 가볍지만 실제 착용하면 무척이나 얇은 두께를 실감할 수 있다. 케이스는 24mm와 29mm 두 가지 사이즈로 엘리제이터 레더 스트랩과 스틸 브레이슬릿 버전으로 출시된다. 또 다른 주력 신제품인 데일로드스는 이름 그대로 철도에서 영감을 얻은 시계다. 실제로 철도 시계 제작자이기도 했던 론진은 과거 전 세계 철도 회사의 호평을 받았고, 루마니아, 세르비아, 페르시아, 이탈리아, 칠레, 미국 등의 철도 직원들이 론진 시계를 착용했을 정도. 철저한 시간 엄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철도업계에서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론진의 완벽함과 정확성, 기술력을 입증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번에 선보인 데일로드스는 1960년대에 그들이 착용한 시계를 거의 흡사하게 복각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철도(rail road)에서 따온 'RR'이 새겨져 있고, 오리지널 모델이 그려졌던 것처럼 칼리버와 연관된 숫자를 함께 새겼다. 인덱스 '12' 대신 '0'을 새겼고, 안쪽에 12부터 24까지 다시 24시간 단위를 표시한 것 또한 오리지널 모델과 똑같다. 백 케이스에는 1920년대 철도 회사를 위해 제작한 포켓 위치에 장식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세공을 가미했다. 문의 02-3149-8232 에디터 권유진

Sport spirit

남성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대담한 외관은 물론, 전문적인 기술력을 더해 브랜드의 명성을 잇는 스포츠 워치 컬렉션을 한자리에 모았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Carrera-Calibre Heuer 01
타그호이어 칼리버-칼리버 호이어 01

1950년대, 무려 3,300km에 달하는 멕시코 대륙을 횡단하던 전설적인 '카레라 파나메리카나' 랠리 경주에서 이름을 따온 카레라는 타그호이어가 디자인한 모터 레이싱의 걸작을 상징하는 컬렉션이다. 이번 2016 바젤월드에서 선보인 카레라-칼리버 호이어 01은 12가지 부품을 이용한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지름 45mm의 케이스, 타그호이어 눈금을 새긴 바젤01 특징, 타그호이어 칼리버 호이어 01 무브먼트는 5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보장한다. 올 스틸 버전과 타타늄, 그리고 세라믹과 라텍스를 함께 사용한 저울 등 세 가지 버전으로 선보인다. 문의 02-548-6020



Big Bang Unico Retrograde
Chronograph Champions League
워블로 빅뱅 유니코 레트로그라데
크로노그래프 챔피언스 리그

유리속구연맹(UEFA) 챔피언스 리그의 공식 워치로 선정된 워블로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에디션. 챔피언스 리그의 디스코 블루 색상을 입힌 직경 45mm의 블랙 세라믹 케이스에 화이트 스틸링으로 장식한 블루 엘레가티 스텔랩을 매칭했다. 오메틱 와인딩으로 작동하는 바이-레트로그라데 모듈을 탑재했으며, 10시와 2시 사이에 위치한 부채꼴 창을 통해 각 45초간의 전반전과 후반전, 그리고 연장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중앙에 위치한 인디케이터에는 각각 전반전과 휴식 시간, 후반전, 경기 종료를 의미하는 1, 1/2, 2, END를 표시하며 로컬 타임은 6시 방향의 인디케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백 개 한정량으로 생산한다. 문의 02-2118-6208 에디터 권유진, 이자연

1백84년 전통의 워치메이킹 브랜드, 론진

1832년 무브먼트 회사로 시작해, 스위스 샹피에에서 1백84년 동안 오랜 워치메이킹 역사와 노하우를 창조해온 론진. 오랫동안 세계 스포츠 대회의 타임키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 스포츠 연맹의 협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온 브랜드답게 론진은 2016 바젤월드를 통해 하우스의 기술력을 집약한 시계를 보다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으로 선보였다. 스틸과 로즈 골드 콤비네이션이 돋보이는 뉴 '돌체 비타' 컬렉션, '말'에 대한 열정을 담아 새로운 모델을 추가한 '이퀘스트리안' 컬렉션으로 브랜드의 찬란한 역사에 명성을 더했다. 또 4.45mm와 4.2mm의 두께로 슬림한 라인을 자랑하는 라 그랑 드 클레식은 더욱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워진 핑크, 스카이블루, 화이트 컬러 버전을 선보여 기술과 아름다움의 절묘한 조화가 절정에 이른 순간을 펼쳐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레트로가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스위스 워치 브랜드에도 헤리티지 열풍이 불었다. 론진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데일로드다. 창안자가 철도 시계 제작자였음을 되새기며 1960년대 지름 36mm의 오리지널 '데일로드' 모델을 40mm 사이즈로 복각해 출시했다. 케이스, 러그 외에 아이보리빛 빈티지 다이얼, 12시 방향에 '12' 대신 '0' 인덱스로 마감한 포인팅까지 거의 완벽하게 복각함으로써 헤리티지 모델에 대한 향수와 트렌드를 모두 아우르는 모습이었다.

헤리티지와 여성 컬렉션을 조명하다

이탈리아 해변을 여유롭게 산책하거나, 광장 앞 테라스에서 따사로운 햇살을 느끼다 보면 이탈리아의 '다 돌체 비타' 시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진다. 달콤한 인생이 꿈이했

던 당시의 풍요로움과 여유, 우아함과 세련미를 상징하며 이탈리아 특유의 달콤한 라이프스타일을 고스란히 간직한 론진의 '돌체 비타' 컬렉션은 1997년 론칭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돌체 비타'의 엘레강스한 아름다움에 매료된 여성들의 손목을 장식해왔다. 그간 까다로운 심미안을 지닌 고객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온 론진은 이번 바젤월드를 통해 돌체 비타 컬렉션의 뉴 버전을 아심 차게 선보였다. 고유의 직사각형 다이얼에 스틸과 로즈 골드를 조화롭게 매치한 브레이슬릿을 연결해 현대적인 세련미를 가미한 것이 특징. 사이즈는 총 네 가지로 은은한 실버 컬러의 플린케 다이얼에 블루 컬러 로마숫자 인덱스 버전, 블랙 래커 또는 머더오브펠 다이얼에 다이아몬드 인덱스를 세팅한 버전으로 선보이며 선택의 폭을 넓힌 것도 만족스럽다. 아이슈워라 라이 빗찬과 린드링, 케이트 윈즐릿의 우아함을 통해 이탈리아의 여유

1 모던하고 럭셔리한 인터리어가 돋보이는 론진 부스. 2 말의 골레 속 직사각형 버클에서 영감을 받은 '이퀘스트리안' 컬렉션. 3 올레의 트레드 캄프를 담은 여성스러우면서 세련미를 지니는 라 그랑 드 클레식. 4 론진의 찬란한 역사를 아낌없이 보여주는 '돌체 비타' 컬렉션. 인덱스 아이보리워치는 로망틱한 뜻을 지닌 여성 시계다. 5 철도 시계 제작자로서의 긴 전통과 헤리티지를 담은 데일로드. 6 '돌체 비타' 컬렉션의 키츠, 머더오브펠, 화이트 인덱스. 우아하고 밝은 그외의 모습이 아름답게 반짝이는 돌체 비타 워치도 나왔다.



엔지니어 권유진



The First & New

2016 바젤월드를 뚫고 가장 인상적인 사건은 바로 샤넬이 최초로 자체 제작 무브먼트를 장착한 남성 시계를 선보인 것이다. 보이 프렌드 워치의 세계적인 성공으로 여성 워치 확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샤넬이, 새로운 무브먼트를 담은 남성 워치를 통해 워치 브랜드로서 보다 진지한 행보를 보인 것은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샤넬의 새로운 남성상, 무슈 드 샤넬을 소개한다.

자체 제작 무브먼트를 장착한 샤넬의 새로운 비전, 무슈 드 샤넬

바젤월드, 혹은 스위스 시계 시장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단연 남성 시계의 장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훌륭한 여성용 기계식 시계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지만 주류에 입성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이다. 기계식 시계가 주를 이루는 고급 시계 분야에서는 보다 복잡하고 완성도 높은 기능을 갖춘 제품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필연적으로 남성 시계가 가장 상위 그룹을 이루는 것이 사실이다. 기계적인 요소에 매력을 느끼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주로 남성들이기 때문이다. 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우며 더욱 복잡한 시계를 선보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바젤월드에서 샤넬은 언제나 새로운 아름다움과 완성도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더 큰 역할을 했다. 바로 본격적인 기계식 무브먼트를 장착한 남성 워치, '무슈 드 샤넬(Monsieur de

Chanel)'을 선보인 것이다. 바젤월드 기간 동안 샤넬 부스에서 조금은 비밀스러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까이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무슈 드 샤넬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아주 단정하고 지적인 첫인상으로 강한 매력을 드러냈다. 항상 독보적이고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선보이는 샤넬이기에 남성 워치 역시 남다른 디자인으로 완성했다. 파리 방돔 광장에서 영감을 받은 팔각형 모터브의 다이얼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이 워치의 핵심은 1백70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매뉴얼 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 칼리버 1이다. 총 5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친 이 무브먼트에는 샤넬 고유의 도전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인스턴트 점핑 아워, 레트로그레이드 미닛 기능을 갖추었으며 디자인, 개발, 신뢰도 검증, 조립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샤넬 인하우스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무브먼트인 것. 다른 브랜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케이스 디자인에 최초의 무브먼트임에도 점핑 아워와 레트로그레이드라는 파격적인 기능을 담은 것이 인상적이다. 소수의 인원이 자리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시계를 자세히 감상할 수 있었는데, 여성 시계 분야에서 꾸준히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한 브랜드인 만큼 하이 워치메이킹 무브먼트의 미학적 면에서도 남다른 안



메이킹



5

목을 드러냈다. 시계의 기능을 완성하는 기계적 요소를 바텀 플레이트에 통합한 컴플리케이션으로 구조적, 심미적으로 안정적인 디자인을 구현했다는 것도 독특하다. 기능만큼이나 디자인도 중요시하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도와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워치 케이스도 절제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데, 40mm 사이즈의 라운드형 케이스는 불필요한 부분이 전혀 없이 시계 본질에 대한 탐구와 더불어 절제와 세련미를 담았다. 디자인에 있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샤넬의 고집을 확인할 수 있다. 돔 형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아래로 실버 오팔린 소재의 다이얼이 반짝인다. 6시 방향의 점핑 아워와 오프 센터의 24도 레트로그레이드 미닛의 독특한 균형미는 샤넬이 생각한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벽하게 새로운 시계라는 주장에 걸맞다. 버클과 용두에는 사자 모티프가 새겨져 있는데, 샤넬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메타포인 이 모티프는 앞으로 샤넬 남성 워치에 더욱 다양한 요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타이포그래피 역시 샤넬이 무슈 드 샤넬을 위해 특별히 고안한 디자인이다. 화이트 골드와 베이지 골드 각 1백50개, 총 3백 개 한정 으로 선보인다.

중성적 매력을 담은 보이 프렌드의 세계적인 성공

대중이 쉽게 다가서기 힘든 스퀘어 워치를 다시 주류로 편입시킨 샤넬의 여성 워치 보이 프렌드. 지난해 출시한 후 대대적인 인기를 기록한 후 올해는 매력적인 가격의 스틸 소재 워치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 30년간 정교한 시계 제작의 세계에서 연구와 혁신을 다한 샤넬 워치 컬렉션은 프리미에르로 시작해 J12, 보이 프렌드로 인상적인 발걸음을 거듭하고 있다. 그중 대중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보이 프렌드 워치의 새로운 버전이다. 샤넬 남부 5 향수병과 방돔 광장에서 모티브를 얻은 팔각형 케이스의 프리미에르 워치를 연상시키는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샤넬의 디자인이 시계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다는 점을 증명한 컬렉션이다. 현대적인 매력과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이 워치는 중성적이면서도 남성적인 모티프까지 담고 있다. 남성복에 사용하는 요소를 과감하게 여성 패션에 도입한 가브리엘 샤넬의 정신을 이어, 여성 워치 컬렉션은 반드시 여성스러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뒤집으면서 더 큰 성공을 거둔 것이다. 올해는 스톱과 미디엄 사이즈 모두 스틸 소재로 선보여 보다 많은 이들이 선택하도록 했고, 폴 디아몬드를 세팅한 보이 프렌드 페이브드 컬렉션은 한정 출시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스틸 소재를 트윈드 페브리처럼 가공한 '보



11

이 프렌드 트윈드 컬렉션. 섬세한 가공 덕분에 전혀 새로운 시계를 만나는 듯 선택의 폭을 넓혔다.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바젤컷 컷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보이 프렌드 아티 다이아몬드 컬렉션도 단 18개 한정 으로 선보여 보는 즐거움을 더했다. 매뉴얼 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를 장착한 보이 프렌드 워치라는 점도 기억해야 할 사실이다. 보이 프렌드 워치와 유사한 매력을 담은 프리미에르는 선명한 레더를 다한 체인 브레이슬릿을 통해 새로운 스타일링을 선보인다. 1천 개 한정 으로 선보이는 '프리미에르 락 팜 핑크'와 '프리미에르 락 팜 터키즈'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제품이 샤넬 워치에 패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담고 있다면 하이엔드 워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샤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마드모아젤 프리베 컬렉션이다. 가브리엘 샤넬의 개인적인 장소와 인생을 담아 기존 워치 브랜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이얼에 새로운 이야기를 펼친다. 물론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전통인, 장인들의 손끝에서 완성하는 메타에 다르 기법을 도입해 뛰어난 완성도를 선보이는 것은 물론이다. 올해는 가브리엘 샤넬이 살던 아파트의 중요한 오브제인 코로망델 래커 병풍에서 영감을 얻은 새와 꽃, 나뭇가지를 묘사했는데, 하나의 시계를 만들기 위해 약 3주간의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정교한 묘사가 특징이다. 그중 꼭 기억해야 할 기법은 바로 골드 스컬프팅 기법. 오너스 다이얼에 정교한 장식을 구현하는데 올해는 마치 새가 날아다니는 듯한 트렘블

링 효과를 도입해 매혹적인 떨림을 담았다. 새의 형태를 고정하는 트렘블링 스프링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기까지 3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지난해 캡슐 컬렉션으로 기획해 정교한 다이아몬드 세팅에 대한 찬사를 끌어낸 '네 에메르erald 샤넬 컬렉션'도 매력적이다. 올해는 샤넬의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컬링 패턴을 모티브로 과감한 세팅 기법을 선보인다. 커프스 형태를 적용해 볼륨을 더했고, 상당한 캐럿의 유색석을 쿠션 컷 등 입체적인 방법으로 세팅해 시크릿 워치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 아름다운 주얼리 워치부터 남성들을 위한 메카니컬 워치까지 시계 분야에서 샤넬의 도전과 남다른 집념은 브랜드의 성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시계 전문가들의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요소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능력, 완성도가 뛰어난 제품, 새로운 콘셉트의 개발까지 현대적인 워치 브랜드로서 모든 방면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샤넬의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다. 문의 02-3442-0962

에디터 배미진

1 샤넬이 오직 남성만을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무슈 드 샤넬'. 용두와 브리지의 사자 모티프가 상징적이다. 2 화이트 골드와 베이지 골드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했다. 3 패션 하우스 샤넬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무슈 드 샤넬의 무브먼트 칼리버 1의 모습. 4 세련된 성공을 거둔 다양한 버전의 보이 프렌드 워치를 만나볼 수 있었던 전시장. 5 선풍적인 성공으로 선보인 '프리미에르 락 팜 터키즈'. 6 무슈 드 샤넬이 탄생한 샤넬 워치 매뉴팩처. 7 가브리엘 샤넬이 가장 아끼던 상징과 오브제들 소재로 최고의 장인들이 완성하는 마드모아젤 프리베 컬렉션 중 트렘블링 효과를 더해 새가 날아다니는 듯한 효과를 준 마드모아젤 프리베 코로망델 플라잉 버드. 8 샤넬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상징하는 레 에메르erald 샤넬. 쿠션 컷 가닛을 세팅한 시그니처 크라운도 모델이다. 9 브랜드 고유의 가치를 잘 드러낸 심플한 외관의 바젤월드 샤넬 부스. 10 빈둥이 내려보이는 곳에 위치한 샤넬 파인 주얼리 공방의 실내. 11 올해 첫선을 보인 보이 프렌드 워치 스틸 버전. 12 스틸에 트윈드 텍스처를 더해 더욱 매력적인 보이 프렌드 트윈드 컬렉션.



9



10



Immortal Charisma

지난해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며 기존 컬렉션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술적 진보와 여성 라인의 확장을 이룬 불가리는 올해도 그 미션을 확실하게 이어나갔다. 현존하는 모든 하이 컴플리케이션 기술을 아우르는, 아름답고 혁신적인 불가리 위치의 완성도, 이탈리아 브랜드만이 내뿜는 환상적인 오리를 지금부터 만끽해보길.



눈부신 성과를 이룬 파인 위치메이킹

거대한 걸작을 빚줄게 하는 바젤월드 불가리 부스는 세르펜티 모티브로 박람회장 전체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반터치 제부터 최신 제품까지 풍부한 야기비를 고스란히 담은 불가리 전장은 화려한 아름다움과 세심한 완성도, 정교한 파인 위치메이킹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다. 1940년대부터 시계를 생산하기 시작, 특유의 독창적인 예술성과 스위스 위치메이킹의 탁월한 기술력이 결합된 놀라운 제품들을 선보이며 하이엔드 위치 분야에서는 눈부신 성과를 이뤘다. 1977년 본격적으로 대규모 생산을 시작하며 출시된 '불가리 불가리' 위치는 오늘날까지 다채롭게 변주되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으며, 2010년에는 최고의 위치메이커 중 하나인 다비드 로스, 재벌도 전파와 함께해 시계 역사에 다시 한 번 커다란 획을 그었다. 이후 불가리는 브랜드의 대담하고 현대적인 이미지와 최고의 위치메이킹 기술을 결합해 완성한 하이 컴플리케이션 위치를 잇달아 내놓으며 완벽한 시계를 향한 집념과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고, 세계 위치업계 중시와 마니아에게 높은 평판을 받았다. 올해는 남성 위치 '옥토' 컬렉션에 컴플리케이션 기술을 접목해 최고급 위치메이킹의 전통과 위상을 이어갔다. 이를 위해 스테리링 매카니즘 고유의 기술적 특징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만들었다. 케이스부터 다이얼 위아워 마커, 케이스의 원형 공 등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었고,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얇은 시계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 여기에 더해 불가리의 시그니처인 뱀의 매력을 재해석한 제품부터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패턴인 위치 등을 통해 시계 이상의 주얼리 위치를 선보여 여성 위치 컬렉션을 한층 강화한 모습도 덧붙일 수 있었다.

하이 컴플리케이션 기술을 집목한 '옥토' 컬렉션

팔각형(octagon)은 고대 문명, 인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세 유럽의 연금술사들은 인공을 의미하는 사자형과 신성을 구현하는 원형이 조합된 팔각형이 말로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완벽함의 상징으로 여겼을 정도. 라틴어로 옥토(octo)라 부르는 숫자 8은 우주론적 가치를 대변했다. 중국 역경에서는 우주의 총체성, 나아가 변화와 힘의 전향으로 통했으며, 수학의 무한성과 불멸의 영원성을 상징해왔다. 불가리 옥토 위치는 이러한 특별한 사고와 역사를 총망라한 제품이다. 아름다움과 균형, 완벽, 불멸, 그리고 영원이라는 의미에 뛰어난 기술력까지 더해지면서 단순한 시계 이상의 가치를 품고 있다. 남성의 넘치는 카리스마와 현대인이 추구하는 개성, 그래픽적인 감각을 온전히 드러내는 외관도 인상적이다. 이번 바젤월드에서 가장 차게 내놓은 옥토 피니시도 미닛 리피터는 울트

라신 무브먼트에 공을 들인 불가리의 장성이 드러나는 모델이다. 이미 2014년 세계에서 가장 얇은 투르비용 모델을 선보인 바 있는 불가리가 이번에는 그보다 얇은 위치를 내놓으면서, 세계에서 제일 얇은 시계라는 타이틀을 되찾은 것. 케이스 두께가 6.85mm이고, 그 안에 탑재한 BVL 칼리버 362의 두께가 고작 3.12mm. 참고로 바세른 콘스탄틴의 페트리오니 울트라-씬 미닛 리피터 칼리버 1731 무브먼트(두께 3.9mm), 예거 르플레르의 마스터 울트라-씬 미닛 리피터 플러잉 투르비용 케이스(두께 7.9mm)가 세운 종전의 기록을 모두 갱신한 결과다. 스테리링 위치의 한계를 깨면서 새로운 발견을 내뿜은 셈. 스테리링 시스템인 시계 무브먼트라는 최소한의 공간에 완벽한 소리를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 가장 복잡한 위치 메이킹 기술 중 하나로, 이를 두



께 3.12mm 수동 무브먼트에 구현한 것이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공명을 좋게 하기 위해 케이스 소재로 티타늄을 택했다. 인덱스와 스물 세컨즈 카운터는 컷아웃 디지인을 적용해 소리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공명을 증폭시키도록 했다. 미닛 리피터로는 드물게 50m 방수 기능을 갖춘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전 세계 50피스 한정판. '옥토 피니시도 스키페톤'은 무브먼트의 아름다움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춘 모델이며 '블랙'이라는 콘셉트로 완성했다. 베젤과 핸즈, 크라운에 기미한 핑크 골드와 아우라진 블랙이 모던하면서도 강력한 오리를 발한다. 슬림하면서도 기능성이 뛰어난 시크한 블랙 다이얼을 통해 보이는 각각의 부품은 화려한 레이스 패턴으로 조각되어 관능적인 느낌을 선사한다. 2.35mm에 불과한 매뉴얼 칼리버이자 기계식 수동 무브먼트 BVL128SK는 스물 세컨즈와 66시간 파워 리저브 디스플레이 기능을 탑재했다.

한 폭의 예술 작품을 담은 여성 컬렉션

바젤월드 박람회장 1층 메인 홀에 위치한 3층 규모의 불가리 부스는 '세르펜티'와 '투보가스' 브라이덜에서 영감을 받은 웅장한 외관 디스플레이를 자랑한다. 그만큼 '세르펜티' 컬렉션은 불가리를 대표하는 아이코닉한 존재. 올해는 투보가스 브라이덜로 손목을 휘감던 '세르펜티' 뱀의 모습을 처음으로 케이스에 적용한 모델을 선보였다. 바로 '세르펜티 인코터티다. 인코터티는 매혹적인 뱀이라는 의미로 뱀이 원형 다이얼 주변을 단단히 휘감고 있는 듯한 자태가 인상적이다. 특히 '세르펜티 인코터티 스키페톤 투르비용'은 스키페톤 다이얼에 투르비용 무브먼트를 탑재해 불가리의 주얼 기법과 위치 테크닉의 장기를 마음껏 뽐낸 모델. 41mm 사이즈에 총 2282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모델은 30점, 총 2백9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루블라이트로 장식한 핑크 골드 모델은 50점 한정판으로 출시한다. 2014년 론칭한 '루체아' 컬렉션은 빛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루체아' 라틴어 역사에서 이름을 따왔다. 시계가 발명되기 전, 하늘 위 태양이 시간을 측정하는 절대적인 도구였음에 주목한 불가리는 그때 로마 시대의 해시계를 재조영하며 빛나는 시간의 역사, 불가리의 혁신적인 기술, 브랜드 헤리티지를 담은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루체아' 컬렉션에 담았다. 올해는 예술가의 정열이라는 주제 아래 지상 낙원의 모습을 그려낸 '루체아 일 자리르노 파라디소'를 선보였다. 정교하게 장식된 다이얼로 차장한 이 호화로운 주얼리 시계는 파라디소를 모티브로, 하늘을 연상시키는 블루 컬러의 머더오벌 다이얼에 낙원의 새와 이국적인 꽃, 나무를 미니멀히 패턴으로 구현했다. 6시 방향의 투르비용, 다이아몬드를 풀 파세 세팅한 베젤과 라그, 붉은 루비 크라운이 화려함을 배가한다. 18K 핑크 골드와 화이트 골드, 사티나 리드 또는 블루 엘라기터 스트랩 버전으로 출시했으며 64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셀프와인딩 투르비용 무브먼트 BVL 263을 탑재했다. 한 폭의 예술 작품처럼 완성된 '루체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주얼리 위치가 아닌, 여성들이 활동적으로 보내는 일상은 물론, 보다 특별한 순간에 언제나 함께하는 위치로 제작이다. 문의 02-2056-0172 에디터 배미진



1 브랜드의 상징적인 모델인 '옥토(Octo)'의 팔각형 케이스와 세르펜티 모티브를 형상화한 불가리 부스. 2 두께가 3.12mm에 불과한 BVL 칼리버 362 무브먼트를 탑재, 세계에서 가장 얇은 미닛 리피터 모델로 선보이는 '옥토 피니시도 미닛 리피터'. 3, 4 브랜드의 기계적 미학이 집대성된 '옥토 피니시도 스키페톤'. 5 예술적 정열(Artistic Garden)을 주제로 지상 낙원의 모습을 다이얼 안에 담아낸 '루체아 일 자리르노 파라디소'. 6 베젤을 따라 파도를 든 뱀의 형상이 심미안을 자극하는 '세르펜티 인코터티 스키페톤 투르비용'.

Jeweler of Twinkle

"감정을 창조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창립자 프레데릭 부세론이 남긴 명언처럼 부세론은 늘 여심을 설레게 하는 섬세하고 독창적인 주얼리와 위치를 선보여왔다. 해마다 바젤월드에서 프랜차이즈 주얼리의 고구름을 선보이는 부세론은 올해도 빛의 주얼리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화려하게 반짝이는 컬렉션을 선보였다.



풍부한 유산을 지닌 주얼리의 대표 위치, 리플레

다시 리플레의 시대가 왔다. 손쉽게 탈착할 수 있는 스트랩 기술 덕분에 여심을 강렬하게 사로잡은 이 멋진 스퀘어 위치가 2016 바젤월드에서 새로운 빛을 발했다. 부세론의 시계 역사는 1858년 파리 방돔 거리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1백58년간 쌓아온 주얼리 세공 기술까지 집약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다. 여타 주얼리 출신 브랜드들이 테크닉에 집중하는 동안에도 부세론은 미학적인 디자인과 감동을 주는 섬세한 주얼리 공법에 집중하며 올곧게 정체성을 지켜나갔다. 매년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완성한 컬렉션을 선보이는데, 올해는 별새, 백조 등과 같은 새에 집중했다. 이러한 부세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위치 컬렉션은 단연 리플레다. 1946년 탄생 이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제품으로, 건축 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고드룬 모티브의 직사각형 케이스가 아이코닉 디자인이다. 사실 '리플레' 위치는 프랑스의 대표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 덕에 유명세를 탔다. 쿨데 높은 프랑스인들이 이 망설임 없이 최고의 국민 가수이자 샹송 가수로 내세우는 그녀는 대부분의 노래가 '국민 애장곡'으로 불릴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 그녀가 사랑의 찬가(Hymne A L'amour)라는 노래로 첫 번째 오디션에 합격했을 때, 앨범이 유명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행운의 선물로 리플레 위치를 구입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그 노래는 공전의 히트를 쳤고, 부세론의 리플레 위치를 행운의 부적으로 삼게 된 그녀는 이후로도 21개 이상의 리플레를



1 머더오벌과 백조와 다이아몬드 깃털을 묘사한 '에퓨어 디 사이프리스'. 2 7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부세론의 대표 모델로, 올해 새로운 버전으로 선보인 리플레 블루 드 조드푸르. 3, 4 올해 바젤월드의 트렌드 컬러인 블루 다이얼을 매치한 '블루 드 조드푸르 에퓨어 42mm'. 5 자연에서 무한한 영감을 받는 부세론의 정채상을 담은 '아주레 오미' 위치. 다이아몬드의 유색성으로 별새의 비행을 정교하게 묘사했다. 7 바젤월드 부스에는 부세론의 빈티지 주얼리 아이코닉도 함께 전시되었다.



구매했다는 후문이다. 리플레 위치의 특별함은 스트랩에도 숨겨져 있다. 특허를 보유한 인터체인저블 스트랩 방식은 원하는 때 자유자재로 간편하게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게 한다. 모노톤 또는 컬러 레더 스트랩부터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까지, 기분이나 의상에 따라 스스로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은 스타일에 민감한 여성들에게 어필할 만한 매력 포인트로 꼽힌다.

인도와 새에서 영감을 받은 뉴 위치 컬렉션

인도는 오랜 세월 부세론과 깊은 인연을 맺으며 다양한 영감을 제공해왔다. 풍부한 유산과 생동감 넘치는 인도 문화에 영감을 표하기 위해 부세론은 조드푸르에서 영감을 받은 리플레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였다. 이름하여 '리플레 블루 드 조드푸르'! 지난해 하이 주얼리 컬렉션에 이어 브랜드의 대표 위치 컬렉션에도 '블루 시타라' 불리는 조드푸르의 이미지를 적용한 것. 블루 모델은 반짝이는 아벤추린(수금석)에 푸른색 엘라기테터 가죽 스트랩을 매치해 도시 전체가 푸른빛으로 뒤덮인 조드푸르에 대한 오마주를 단번에 알아챌 수 있다. 화이트 모델은 대리석을 사용한 다이얼로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이는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인 인도 타지마할의 건축물에서 착안한 소재로 '인도'라는 영감의 원천을 놓치지 않고 적용했다. 두 모델은 각각 88개 한정 생산하는데, 이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별자리 개수를 의미한다. 2013년 론칭한 '에퓨어 컬렉션'은 '순수한'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처럼 깨끗하지만 강렬한 라인의 대비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모던한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준다. 브랜드의 상징적인 디테일인 더블 고드룬, 블루 사파이어 카보숑 컷 크라운, 클루드 파리(다이얼 중앙의 자갈길 모티브) 장식, '3'과 '9'만 아라비아숫자로 처리한 인덱스가 특징이다. 이 인덱스는 부세론이 창립된 해인 1893년을 기리는 의미로 끝 두 자리에서 가져온 디자인 모티브다. 케이스 뒷면에는 프

레데릭 부세론의 모토인 '나는 오직 즐거운 순간만을 선택'을 각인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순간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올해는 '에퓨어' 컬렉션에서도 인도에서 영감을 받은 베리이션 라인을 출시했다. 선명한 블루 다이얼이 청량감을 선사하는 '에퓨어 블루 드 조드푸르'가 주인공이다. 부세론의 많은 모델에 ETA의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하는 데 반해, 42mm 사이즈인 이 시계에는 42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고 시간당 2만8천8백 번 진동하는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SW500을 탑재해 기능에 민감한 남성들을 공략한 듯. 종종 새로운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에퓨어 다르'는 올해 고결한 화이트 스완과 블랙 스완을 주제로 한 사이프리스 컬렉션으로 탄생했다. 자연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풍부한 영감을 얻었던 창시자 프레데릭 부세론의 전통을 따라 평생 서로에게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유일한 동물인 백조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함이다. '사이프리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또 다른 이름으로, 아프로디테의 머치를 끄는 호수와 백조를 떠올리며 사이프리스 라인을 완성했을 터. 영원한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한 쌍의 사이프리스 위치를 바라보고 싶다면 마치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처럼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발한다. 입체감 느껴지는 머더오벌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깃털은 생동감이 넘친다. 각각 8점만 한정 생산하는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지라드 페리고 매뉴팩처 무브먼트 GP 4000을 탑재했다. 주얼리라는 장기를 살린 주얼 위치도 빼놓을 수 없다. 빠른 날갯짓과 작은 몸,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알려진 벌새에게 영감을 얻어 재해석한 '아주레' 컬렉션 이야기다. 방돔 광장 내에 위치한 주얼리 메이커의 위상이 느껴지는 섬세한 세팅 공법이 돋보였는데, 부세론의 주얼리들은 정확한 컬러와 강도를 구현하기 위해 5백32개의 보석을 간간하게 골라 아름답게 배치했다. 골드와 다이아몬드, 색색의 사파이어를 머금고 생명력을 얻은 한 쌍의 벌새가 투명 다이얼 위에서 다정하게 노니는 모습이 사랑스럽다. 문의 070-7500-7282 에디터 배미진



6 바젤월드 부스에는 부세론의 빈티지 주얼리 아이코닉도 함께 전시되었다.



refined Class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를 호가하는 제품 사이에서 부담 없는 가격에 매력적인 디자인의 패션 하우스 브랜드 위치는 바젤월드를 관전하는 색다른 묘미를 안겨준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윗부터 차례로) 구찌 타이밍피스 & 주얼리 다이얼피스 구찌 타이밍피스 & 주얼리의 상징적인 모달 다이얼피스의 뉴 버전, 은은한 빛을 내는 자개 다이얼과 다이아몬드 장식 인덱스가 돋보이며, 파피어드 모양의 크라운이 특징이다. 아랍한 22mm 사이즈로 손목을 더욱 다듬어 보이게 만들어준다. 문의 02-551-7045

캘빈클라인 스텝 미니컬럼의 정수를 보여주는 캘빈클라인에서 이번 시즌 처음 선보이는 컬러인 '페트룰 그린' 다이얼이 화제이다. 도시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은 그래픽적인 선이 돋보이는 메탈 브레슬릿을 매치했다. 보는 것만으로도 청량감을 선사하는 이 워치는 30m 방수 기능을 갖췄다. 문의 02-3149-9562

엘프리드 이븐마시 클래식 ARS7701 28X30mm 사이즈의 여성스러우면서도 우아한 스퀘어 케이스가 특징. 12개의 다이아몬드 인덱스로 장식한 화이트 자개 다이얼과 로즈 골드 색상의 브레슬릿이 잘 어울린다. 패션 워치 중 엔트리 라인으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인 만큼 엔트리 위치를 찾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문의 02-3440-6400

스와로브스키 알레그리아 브랜드의 전통적인 커팅 기술이 돋보이는 리워드 파세팅 크리스탈 베젤이 아름답다. 캐주얼과 포멀한 룩 어디에서나 잘 어울리며, 다른 액세서리와 함께 레이어링하면 매력적 배가된다. 문의 1661-9060

팬디 폴리크로미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얼리 디자이너 엘디나 델레르레즈 팬디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그라스어로 'poly(다중)'와 'chroma(컬러)'는 단어를 조합해 만든 이름처럼, 화이트 골드와 옐로 골드,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공작석 등 최상급 재료로 만든 다중색영역 조각과 컬러의 환상적인 조화가 돋보인다. 문의 02-3284-1300

스와로브스키 메모리즈 미니컬럼 스퀘어 케이스에 크리스탈 메시 스트랩을 더해 사센을 비는 메모리즈 워치는 시계로서의 기능은 물론, 포인트 주얼리에도 손색없을 만큼 화려한 비주얼로 디자인과 기능성 모두를 만족시킨다. 바젤월드 기간 동안 프레스룸에서 가장 좋은 반응을 얻은 모델이기도. 문의 1661-9060

팬디 마이웨이 탈착 가능한 퍼 장식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마이웨이 워치는 고대 로마의 원형공장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정교한 곡선 케이스가 특징. 문의 02-3284-1300 에디터 권유진, 이자연

HERMÈS



해 보여도 순백의 컬러를 얻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다. 장인은 구리 플레이트에 가는 붓을 이용해 화이트 에나멜 파우더를 얇게 바른다. 고온에서 곧바로 구워내는 에나멜 기술을 그랑 피라 일컫는데, 에나멜이 녹아서 플레이트에 자리 잡는 정확한 시점에 맞춰 가마에서 꺼내려면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하다. 830°C의 가마에서 5~6분 굽는 과정을 거치면 부드럽고 반짝이는 표면의 화이트 에나멜 다이얼이 완성된다. 에르메스는 에나멜 다이얼을 3개 층으로 구성했다. 가장 윗부분에는 아워 마커가, 두 번째 단계는 미니 트랙이, 마지막 층에는 6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 서브 다이얼이 위치하는데, 각 층은 따로 제작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부착한다. 0.2mm의 얇은 다이얼 하나를 완성하는 데 약 8시간이라는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39.5mm 로즈 골드 케이스에 H1950 무브먼트를 탑재했고, 매트한 갈색 허바나 악어 가죽 스트랩으로 마무리했다. 그래픽 아트와 기계 기술의 미학적인 조화를 보여준 '슬림 데르메스'는 올해 39.5mm 사이즈의 여성용 올트라 신 무브먼트와 다양한 컬러의 엘리제이터 스트랩을 장착한 버전으로 출시되었다. 66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과 세팅하지 않은 버전에서 사파이어 블루, 엘라펀트 그레이, 제라늄(붉은 레드 컬러), 블랙 커런트(피플 컬러), 블랙 등의 컬러 스트랩을 매치해 그야말로 다채로운 컬러 향연을 보여준다. 다이얼은 오팔린 실버로 만들었다. 남성 컬렉션 역시 컬러를 더했다. 슬레이트 그레이 다이얼에 일명 '엘라펀트 그레이'라는 이름의 악어가죽 스트랩을, 미드나잇 블루 다이얼에는 매트 인디고 악어가죽 스트랩을 매치한 시계를 추가했다. 두께 2.6mm의 마이크로 로터로 구현한 오토메틱 와인딩 올트라 신 무브먼트 H1950을 심장에 품었다. 6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 기능과 42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Art of Time

에르메스는 1928년부터 시계를 제작해왔고,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브랜드의 철학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급스러움,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는 아름다움, 그리고 장인 정신을 담은 최상의 시계를 선보여 시계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기술력과 아트를 접목한 창의적인 시계 컬렉션을 비롯해 지난해 론칭한 '슬림 데르메스'의 신제품으로 브랜드의 자력을 과시했다.



에르메스의 장인 정신을 옷감이 담은 시계 바젤월드에서 에르메스의 부스는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섬세하고 고귀한 장인들의 터치가 담긴 시계들이 유리 박스에서 우아한 자태를 드러낸다. 에르메스가 처음 시계를 공개한 것은 1928년으로, 매우 긴 역사를 자랑한다. 스위스 비엠틀 시계 부문 자회사 라 몽트르 에르메스를 설립한 1978년 본격적으로 시계 분야에 발을 디디며 그해에 '아소' 컬렉션을 탄생시켰는데, 이 컬렉션은 지금도 에르메스의 얼굴 역할을 한다. 2003년부터 보세 매뉴팩처 플러리에의 지원을 확보한 에르메스는 자사 무브먼트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보세 매뉴팩처 플러리에 18세기부터 2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계식 무브먼트를 제조해온 전문 회사로 스위스의 제약 회사, 호텔 등을 소유한 산도즈 가족 재단이 75%, 에르메스 인터내셔널이 2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작은 부분까지 완벽을 추구하는 만큼 라 몽트르 에르메스에서는 스트랩만 제작하는 공방을 따로 운영하는데, 에르메스 핸드백이나 마구 등을 만들 때와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흥미로운 점은 에르메스는 기술력에만 집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보다 복잡한 시계, 새로운 기술에 매달리는 시계 매뉴팩처나 브랜드와 달리 에르메스는 창의력과 장인 정신의 관점에서 신제품을 고민한다.

기계식 무브먼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도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높은 가격만큼이나 고품질로 유명한 핸드백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 써서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에르메스다운' 방식을 택할 뿐이다. 에르메스에 기술력과 아트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한 도구다. 올해 선보인 시계는 하나같이 기술력과 아트를 접목한, 창의력이 돋보이는 시계들이다. 지난해 올트라 신 인하우스 무브먼트 H1950을 장착한 워치 컬렉션 '슬림 데르메스'를 론칭한 데 이어 올해는 우아한 컬러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베리레이션 모델을 잇달아 출시한 한편, '자연으로의 질주를 주제로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타임피스'를 예술적인 기법과 감성으로 풀어낸 프레스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에나멜 기법과 컬러로 돌아온 '슬림 데르메스' 아티스트 필립 아펠루아의 타이포그래피를 도입한 독특한 숫자 인덱스가 특징인 '슬림 데르메스' 라인. 인간의 움직임 숫자 인덱스가 특징인 '슬림 데르메스' 라인. 인간의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아 리드미컬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한 숫자 인덱스로, 지난해 론칭 당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올해는 미니멀함을 극대화하는 에나멜 그랑 피 다이얼 버전을 공개했다. 특히 화이트 에나멜 다이얼은 겉으로는 단순

1 2016 바젤월드에서 참가한 에르메스 부스. 2 필립 아펠루아(Philippe Apeloig)의 타이포그래피 숫자를 시계 인덱스에 적용한 '슬림 데르메스 39mm 에나멜 그랑 피'. 3 다이아몬드 세팅 버전의 '슬림 데르메스 39.5mm'. 4 에르메스의 전통적인 에마유 옹브랑 기법을 통해 완성되고 있는 '아소 타이거'. 5 '슬림 데르메스 포켓 판테르'의 다이얼에는 인그레이빙과 그랑 피 미니어 에나멜링 기법을 적용했다. 에르메스의 2016 메인 타이인 'Nature at Full Gallop: 자연으로의 질주를 담은 '슬림 데르메스 포켓 판테르'.



자연에 대한 오마주'를 담은 아트 컬렉션 2016년 에르메스의 테마는 '자연으로의 질주'다. 이미 2016 S/S 컬렉션을 통해 동물화가 로베르 달레의 작품을 담아낸 에르메스는, 시계에도 그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적용했다. 1980년대에 매종과 작업한 아티스트 로베르 달레의 그림 속 호랑이를 '아소' 위치의 다이얼 위에 형상화해 '아소 타이거'를 탄생시킨 것. 신비하고 강인한 느낌을 내기 위해 에나멜링의 한 종류인 에마유 옹브랑(명암이 표현된 에나멜) 기법을 사용했다. 이 기법을 시계에 적용하기까지 꼬박 2년이 라는 준비 기간이 소요됐을 정도로 공을 들였다. 여기에 인그레이빙 기법까지 첨가했다. 본래 프랑스 리모주 도자기 제작에 사용하던 이 기술은 전통적인 양자 기법과는 다르게 표면을 얇게 음각한 후, 그곳을 유약으로 매워 빛이 투과할 때 음각과 양각에 따른 음영이 드러나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풍긴다. 총 12점 한정판으로 셀프와인딩 인하우스 무브먼트 H1837로 시침과 분침을 움직인다. 인그레이빙과 에나멜링, 두 장인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위치는 또 있다. '슬림 데르메스 포켓 판테르'다. 멸종 위기에 처한 인도차이나 표범인 'Panthera Pardus'의 우아한 자태를 그려낸 것으로 역시 로베르 달레가 그린 일러스트레이션을 다이얼에 담았다. 표범의 형상은 '그랑 피' 에나멜링 기법으로 구워냈는데, 다이얼이 완성되기까지 에나멜 파우더를 다이얼에 입히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눈썹인 배경에서 두 기술의 조화는 절정을 이룬다. 여기에 2.6mm의 올트라 신 무브먼트 H1950이 장착되어 있다. 인그레이빙과 에나멜링 기법으로 새로운 작품을 완성한 '아소 타이거'나 '슬림 데르메스 포켓 판테르'는 에르메스의 예술혼을 보여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문의 02-3015-3281 에디터 배미진

Time Art in Basel

정밀함과 고귀함, 아름다움과 강렬함을 모두 담아 올해 바젤월드를 빛낸 스타 워치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BLANCPAIN
블랑페인 더빅웨이브

BLANCPAIN
블랑페인 에뉴얼 캘린더 GMT



CHANEL
보이 프렌드 아티 다이아몬드

CHANEL
보이 프렌드 스틸 알라게이터

CHANEL
보이 프렌드 트우드



BREGUET
트래디션 마넛 리피터 투르비옹 7087

BREGUET
클래식 문데이즈 달문 9088



BOUCHERON
에뮤어 다른

BOUCHERON
리플레 블루 드 조드푸르

HERMÈS
슬림 데르메스 매뉴팩처



HERMÈS
슬림 데르메스 에나멜 그랑 푸



BVLGARI
옥토 마닛 리피터



BVLGARI
옥토 스키텐

OMEGA
스피드마스터 문페이즈



OMEGA
씨마스터 플래닛 오션 컬렉션



CHRONOSWISS
시리우스 플라잉 레귤레이터



GIRARD-PERREGAUX
플레이스 자리르데





SWAROVSKI
크리스탈린 아워 화이트



SWAROVSKI
크리스탈린 아워 블랙



SWAROVSKI
알레그리아



MIDO
바론첼리 헤리티지



MIDO
멀티포트 크로노그래프 어드벤처



HAMILTON
브로드웨이 오토 크로노



HAMILTON
카키 네이비 프로그램



CALVIN KLEIN
뉴미럴 메탈 스트랩 미디엄



CALVIN KLEIN
뉴미럴 메탈 스트랩 스몰



TISSOT
벨라 오라 피콜라



TISSOT
트래디션 오토매틱 오픈 하트



FENDI
폴리크로미아



FENDI
셀러리아





Sparkles of Light

스와로브스키는 내로라하는 세기의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불꽃같은 영감을 선사했음은 물론이고 시대의 트렌드를 이끌어온 셀러브리티 스타일의 마침표였다. 이제는 품질이 뛰어난 크리스탈의 매력을 강조한 워치 컬렉션에도 집중하는 모습. 트렌드하고 대담한 디자인부터 믹스 매치하기 쉬운 디자인까지, 주얼리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신제품을 통해 크리스탈로 보여줄 수 있는 '환상을 마음껏 펼치고 있다'.



일상에 빛을 더해주는 존재, 스와로브스키
 바젤월드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부스, 그 안에는 여자들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반짝임이 가득하다. 바로 스와로브스키의 워치 컬렉션이다. 1895년 오스트리아에서 설립한 스와로브스키가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단, 반짝이는 모든 것들이 많은 이들의 기쁨이 되는 것. '크리스탈을 더 빛나게, 더 섬세하게'에만 집중하며 한결만 올곧게 걸어온 스와로브스키는 주얼리, 패션, 조명, 건축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 스며들었고, 크리스탈이 표현할 수 있는 무한한 아름다움을 다채롭게 펼쳐왔다. 2009년부터는 세계 산업에도 뛰어 들었다. 워치메이커로서 후발주자의 이미지를 단번에 떨치겠다는 뜻, 스와로브스키는 짧은 시간 동안 세 번이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를 수상하며 세계 디자인 파트에서 당당하게 경쟁력을 입증해 보였다. 독보적인 크리스탈 관련 기술력과 노하우를 자랑하는 브랜드답게, 스와로브스키의 모든 시계에는 아름다운 크리스탈이 장식되어 손목 위에서 반짝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 수공으로 제작한 12시 방향의 백조 모티프가 스와로브스키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표현한다. 2016 컬렉션에서는 뱀글이나 브레이슬릿과 함께 착용할 수 있는 패션

액세서리의 기능에 충실한 시계를 내놓았다. 네 가지 신제품 라인과 기존 라인의 베리언션 워치들은 특유의 광채와 패션 센스, 화려함 덕에 한눈에도 스와로브스키의 제품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 이제는 탄탄하게 입지를 굳힌 스와로브스키는 지난 2012년에도 남성 라인에 도전한 바 있는데, 다가오는 2017년 이를 더욱 보강한 유니섹스 라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눈부신 광채와 정교한 기술의 만남

브랜드의 DNA라 할 수 있는 독창적인 크리스탈 커팅 기술과 유니크한 컬러 매칭이 두드러졌던 스와로브스키의 2016 뉴 컬렉션. 워치 다양한 스타일을 갖추었기에 취향이나 연령, 스타일과 무관하게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아이템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워치는 알레그리아다. 데일리로 착용할 수 있는 시크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모델로, 보석의 절사 면인 패시에서 착안한 베젤의 경사면이 특징으로, 고유한 전문적인 커팅 기술이 돋보이는 폴 파베 세팅 크리스탈 베젤이 일상에 화려한 광채를 더해준다.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은 스테인리스 스틸, 로즈 골드, 옐로 골드, 그리고 블랙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최대 수심 50m 방수 기능을 제공하는 스위스 메이드 무브먼트를 탑재했다. '크리스탈린 아이웍스는 기존 '크리스탈린' 라인에서 진화된 디자인으로 '새 옷'을 갈아입은 모델이다. 다이얼에 약 4천 개의 크리스탈을 가득 채운 불룩한 동형 글라스를 채택해 크리스탈의 광채를 극대화함으로써 브랜드의 독창성과 화려함을 마음껏 펼쳤다. 뱀글이나 브레이슬릿과 함께 레이어링해 개성 넘치는 스타일로 연출하기도 좋고, 데이 룩에서 이브닝 룩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도 있다. 세계적인 워치 디자이너인 에릭 지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탄생시킨 '크리스탈린 아이웍스는 스와로브스키 최초의 여성용 오토매틱 워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브랜드의 노하우와 최상



뱀글 시계 구멍이



1 진먼을 크리스탈로 장식해 화려한 무드를 자아내는 스와로브스키의 부스. 2 스와로브스키 부스 안에 전시된 워치와 주얼리 제품을 둘러보는 관람객. 3 약 1천7백 개의 크리스탈로 장식해 화려함을 극대화한 '크리스탈린 오벌'. 4 이번 바젤월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스와로브스키의 첫 여성용 오토매틱 워치인 '크리스탈린 아이웍'. 5 11개의 크리스탈 인덱스 마커와 자개 다이얼이 아우라를 '드리미', 6 폴 파베 세팅된 크리스탈 베젤이 돋보이는 알레그리아. 7 미려한 직사각형 케이스에 크리스탈 메시 스트랩을 매치한 메모리즈.

뱀글 시계 구멍이

Less is More

'디자인 중심의 독창적인 아이덴티티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워치메이킹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라도. 워치메이커 최초로 도입한 하이테크 세라믹, 착용감이 우수한 알체형 모노블록 케이스처럼 매 순간 착용하는 이를 고려한 라도의 시계는 언제나 실용적이고 인체 공학적이다. 이번 바젤월드는 소재와 디자인 면에서 가벼움을 추구한 라도의 신제품을 만날 수 있었다.



전 세계에서 컬렉션한 오프제와 라도 컬렉션을 함께 배치하는 큐레이션까지 맡아 독창적인 바주얼을 연출한 그녀의 예견대로, 라도는 올해 '가벼움'에 집중한 모습. 그 주제에 가장 충실한 모델은 바로 '트루 오픈 하트' 워치다. 가장 눈에 띄는 디자인 포인트는 반투명한 다이얼. 0.2mm의 얇은 자개 다이얼 안으로 무브먼트가 은근하게 드러난 모습은 마치 손목 위에 오로라가 내려앉은 듯 신비로운 오라를 발산한다. 매트한 무광의 블랙 또는 화이트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에 80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에타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탑재했다. 아쉽게도 5백 개 한정판이다. '단순한 것이 더욱 아름답다'는 진리를 아는 세련된 현대인에게는 '하이퍼크롬 울트라 라이트'가 제격이다. 젠(Zen)을 콘셉트로 한 시계로 인덱스가 전혀 없는 다이얼과 미니멀한 디자인, 딥 그레이 컬러가 모던한 스타일을 완성하기에 그만이다. 게다가 무게는 겨우 56g. 신소재들이 끄는 선두 주자답게 새로운 소재 개발을 감행한 결과다. 우주 항공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실리콘 나트라이드와 경화 티타늄 인서트, 부식과 마모로부터 무브먼트를 보호하는 역할을 겸하는 알루미늄 예보시가 무게를 낮춰 조경량을 가능케 한 보석 같은 소재들이다. 남성이 물씬 풍기는 '하이퍼크롬 1616'은 디스커버리 정신에 바치는 송가다. 1616년 2명의 네덜란드 상인이 남미 최남단에 위치한 케이프 혼을 발견한 지 4백 년이 되는 것을 기념한 컬렉션. 특수 경화 처리한 티타늄 소재를 사용해 경도를 3배 가까이 높였으며 스크래치에도 강하고, 46mm 사이즈의 대담하게 각진 케이스에 슈퍼루미노바 처리한 핸즈와 100m 방수 기능을 담아 실용성 또한 높였다. 하이퍼크롬 1616이 강인함과 무게감을 전한다면 '트루 컬러' 컬렉션은 포멀 룩이나 비즈니스 룩에 매끈하게 연출되는 가벼움과 스포티함을 발산하는 경쾌한 타임피스다. 기존 순백의 화이트, 스모키 그레이, 메탈릭 플라σμα, 초콜릿 브라운에 이어 딥 블루와 다크 그린 컬러를 추가해 총 일곱 가지 컬러 팔레트를 완성했다. 이처럼 다른 어떤 브랜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니크한 아름다움과 편안한 착용감, 독보적인 하이테크놀로지는 라도가 수많은 마니아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의 02-3149-9582 **에디터 권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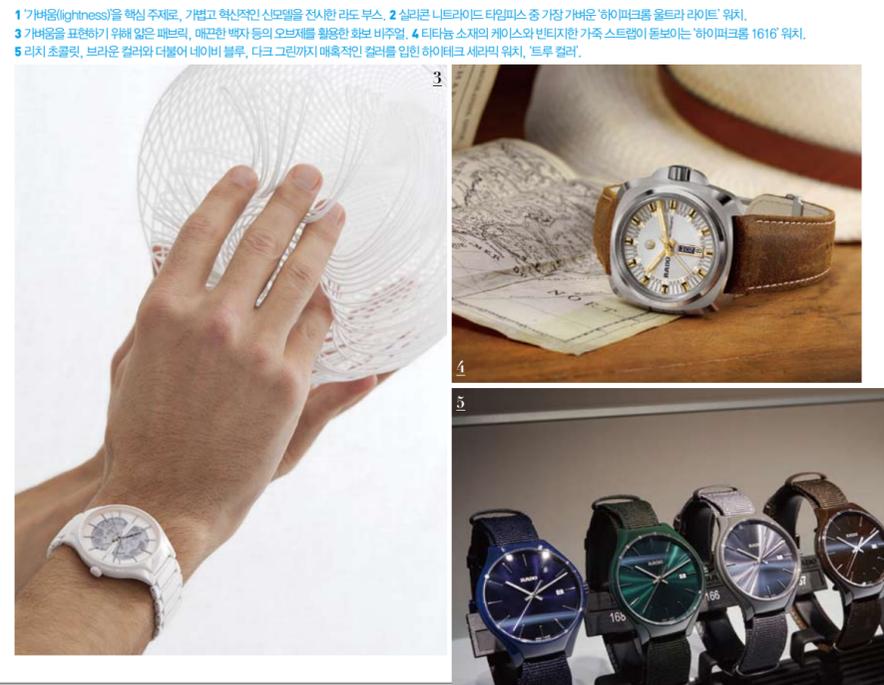
하이테크놀로지의 선두 주자, 라도

짧게는 수십, 길게는 수백 년간 시계를 만들어온 워치메이킹 브랜드에는 자신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제품이 존재한다. 최초의 팔각형 다이얼, 기록을 깨는 초박형 무브먼트 등이 그 예다. 세계 최초로 하이테크 세라믹 위치를 탄생시킨 스위스 워치메이커 라도 또한 마찬가지. 1917년 스위스 랭나우에서 설립된 이후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와 혁신적인 소재 사용 등 기존 브랜드들과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선보이며, 수많은 워치 브랜드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왔다. 굽힘 방지 특허 기술을 적용한 워치 컬렉션을 론칭한 이후 끊임없이 세라믹 위치를 연구·개발해온 이들은 1986년 '하이테크 세라믹'이라는 신소재를 시계 산업에 도입한 주인공이다. 18K 골드보다 10배 더 단단하면서 2.5배나 가볍고 생활 스크래치가 적은 세라믹은 시계 표면에 닿는 체온을 흡수해 착용 시 느껴지는 이질감과 알레르기를 최소화하는 소재. 이렇듯 다양한 장점을 지닌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는 라도가 개발한 모노블록 케이스와 만나 라도 하이퍼크롬 컬렉션으로 완벽하게 승화되기도 했다. 시계 케이스가 완벽한 하나의 물체를 이루는 모노블록 구조를 통해 다시 한번 테크놀로지의 선두 주자임을 입증한 것. 라도의 하이테크 세라믹 워치는 1mm의 오차도 없이 수작업으로 설계된 뒤 1,000bar의 압력을 거쳐 1,450℃의 용광로에서 구워진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1,250배의 강도를 자랑하는 라도의 하이테크 세라믹 위치가 완성된다. 유니크한 디자인과 최첨단 소재로 무장한 라도는 2016년, 최근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따라 가벼움을 추구하며 보다 절제된 디자인과 얇은 외형의 워치 컬렉션을 내놓았다.

상상 그 이상의 가벼움을 전한다

라도는 '언제나라는 정의 아래, 아름다운 디자인, 편안한 디자인, 영원한 디자인을 추구해왔다. 극도로 단순화된 우선형의 실루엣과 모던한 디자인, 실용성을 강조한 혁신적

인 신소재 사용 등을 통해 그들의 철학을 읽을 수 있다. 최근 라도는 디자인 발전을 도모하고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트렌드 예측 전문가 리더바이 에펠쿠르트와 손잡고 특별한 디자인 위치를 선보였다. 자신의 신작 <가벼움> 디자인하다(Designing Lightness)를 통해 가벼움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디자인 세태를 이어가던 그녀는 깃털처럼 가벼운 외상과 얇고 절제된 위치에 대한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1 '가벼움(Lightness)'을 핵심 주제로, 가볍고 혁신적인 신소재를 전한 라도 부스. 2 실리콘 나트라이드 타임피스 중 가장 가벼운 '하이퍼크롬 울트라 라이트' 워치. 3 가벼움을 표현하기 위해 얇은 패시, 매끈한 백지 등의 오프제를 활용한 홍보 비주얼. 4 티타늄 소재의 케이스와 빈티지한 가죽 스트랩이 돋보이는 '하이퍼크롬 1616' 워치. 5 리치 초콜릿, 브라운 컬러와 더불어 네이비 블루, 다크 그레이까지 매혹적인 컬러를 입힌 하이테크 세라믹 워치, '트루 컬러'.



Passionate Revolution

올해 티쏘는 브랜드의 기술력과 역사를 반영한 다양한 신제품을 쏟아내며 프레스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남성 워치로 재해석한 '트래디션 오토매틱 오픈 하트', 팔찌를 연상시키는 '벨라 오라 피콜라' 워치, 클래식한 라인의 '르 로콜 레굴레이터' 등 뉴 컬렉션이 역동성과 클래식한 아름다움을 동시에 발산한 것.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는 다채로운 라인업

티쏘의 부스를 찾으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다채로운 제품과 이를 즐기는 관람객을 만날 수 있다.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세계적인 시계 브랜드로 자리매김했기에 바젤월드에서도 가장 활발한 모습으로 브랜드의 가치에 생명력을 더한다. 1853년 스위스 시계 산업의 요람인 르 로콜 지역에서 처음 탄생해 최상의 시계를 만들기 위한 부단한 도전과 혁신, 열정으로 1백63년의 워치메이킹 역사를 쌓아온 티쏘, 기술적인 깃뎀만 아니라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혁신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전통을 충실히 이어나갔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신제품을 준비했다. 그 오랜 전통을 대변하며 베스트셀러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T-클래식(T-Class) 라인과 브랜드

T-클래식의 새로운 얼굴

베스트셀러로 손꼽히는 '르 로콜', '푸트라에', '헤리티지', '트래디션' 컬렉션은 티쏘의 T-클래식 라인에 속한다. 최고의 정확성에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접목한 라인이다. 이번 바젤월드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제품은 '르 로콜' 컬렉션의 라인업 제품인 '르 로콜 레굴레이터'다. 18~19세기 시계 공방에서 회중시계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했던 오리지널 '레귤레이터' 시계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제작했다. 당시에는 시간을 세팅할 때 대체로 시보다는 분과 초에 더 집중하게 되는 특성을 고려해 분리된 형태를 갖추었다. 또 시계가 초 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로 바뀌었던 때로, 이를 재현하기 위해 분을 표시하는 핸즈를 크게 배치하고 초를 표시하는 카운터를 다이얼 하단에 위치시켰다. 본래 레귤레이터 타입은 가죽

성에 목적을 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일반 대중보다는 시계 마니아나 기계식 시계에 대한 관심과 정보력이 높은 이들을 타겟으로 한 시계다. 30m 방수 기능을 갖춘 ETA 2824-2 무브먼트를 탑재했고, 사파이어 크리스털 백 케이스를 통해 무브먼트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T-클래식 라인 가운데 '트래디션' 컬렉션에서도 뉴 모델을 내놓았다. 2014년 출시한 스키텔론 라인이 인기를 얻으며 12시 방향 한쪽에 스키텔론 디테일을 추가함으로써 다이얼의 일부를 통해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 '트래디션 오토매틱 오픈 하트'가 그 주인공이다. 사실 지난해 여성용 모델에 먼저 적용했던 오픈 하트 형태를 남성용으로 영역을 확장한 것. 굳이 스키텔론 위치 정도의 값비싼 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오픈워크 처리를 통해 기계식 시계의 묘미를 다이얼에서도 느낄 수 있으니, 부담은 덜고 만족도는 높일 수 있는 매력적인 아이템이다.

스포츠 라인과 레이디 라인의 뉴 컬렉션

스포츠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넘치는 티쏘는 T-스포츠 라인, 특히 1960년대 모터 스포츠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PRS516' 시리즈를 확장했다. 특유의 레이싱 콘셉트를 다이얼부터 스트랩까지 반영했는데, 스티어링 휠을 연상시키는 편칭 다이얼의 스트랩, 레이싱 카 엔진의 피스톤을 닮은 푸셔 등이 그것이다. 퀴츠 크로노그래프 버전, 80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파워매틱 80 오토매틱 스티어링 버전, 3개의 스몰 세컨드 카운터를 장착한 스페셜 워치 버전 등 다양한 베리에이션 모델을 갖춘 점도 남성들의 소유욕을 자극하는 요소다. 스티어링 휠로 백 케이스를 마감하거나 속력을 측정할 수 있는 타키미터 기능의 블랙 세라믹 베젤을 더하는 등 레이싱 경기에 최적화된 요소가 모델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있다. 여성을 위한 시계 중에서는 T-레이디 라인의 신제품 '벨라 오라 피콜라'가 단연 돋보인다. 마치 고급스러운 브레이슬릿을 연상시키며 스타일에 민감한 여성들을 만족시킨다. 타원형 케이스와 로마 숫자 인덱스가 특징으로 모델에 따라 화이트, 블루, 블랙 컬러의 크라운이 시계의 럭셔리한 매력을 배가한다. 뱀가죽 패턴의 트랜디한 가죽 스트랩과 스틸 메시 브레이슬릿 스트랩 버전 중 선택할 수 있다. 문의 02-3467-8795 **에디터 권유진**



1 12시 방향에 스키텔론 형식의 대입을 추가해 하이엔드 워치메이킹 기술력을 한껏 드러낸 '트래디션 오토매틱 오픈 하트' 워치. 2 NBA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기념해 선보이는 'T-타치 엑스퍼트 스포츠 NBA 스페셜 에디션'. 3 티쏘의 베스트셀러인 '푸트라에' 컬렉션의 오토매틱 크로노 버전인 '푸트라에 오토매틱 크로노'. 4 우아한 곡선형 베젤과 신비로운 느낌의 창판 다이얼이 유니크한 여성 워치, '벨라 오라 피콜라'. 5 스포츠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티쏘는 올해 NBA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그 특별한 컬렉션을 전사하는 부스. 6 올해 티쏘는 기술적으로 강화된 오토매틱 시계의 매력적인 여성 워치, 스포츠와의 협업 등 다채로운 제품을 전사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Aim at Perfection

작년 한국 론칭 5주년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기록적인 한 해를 보낸 스위스 워치 브랜드 '미도(Mido)'는 2016년 또 다른 기록을 세우는 해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바젤월드 컬렉션 론칭 40주년을 기념해 오토매틱 무브먼트 시계 브랜드 중 가장 얇은 케이스 디자인을 선보인'과 동시에 기존 아이코닉 라인에 기술적 강화와 새로운 소재를 더해 바젤월드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하게 다진 것. 그 어떤 브랜드보다 열기와 에너지가 가득했던 미도의 2016년 바젤월드 리포트.



하이엔드 기술력에 더한 매력적인 디자인

미도에는 퀴츠 무브먼트 시계가 없다.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들조차 시계 단가를 낮춰 판매율을 높이고 브랜드의 대중화를 위해 퀴츠 시계를 선보이고 있는 시점에, 미도는 브랜드가 창립된 1918년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오토매틱 무브먼트만 고집해왔다. 그것도 아주 놀라운 만큼 매력적인 가격대에 말이다. 물론 미들 레인지를 타겟으로 하는 다른 워치 브랜드들에서도 눈에 띄는 오토매틱 위치가 있지만, 미도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까다로운 COSC 인증을 받은 무브먼트를 연간 7만 개 넘게 선보인다는 사실. 이는 롤렉스, 오메가, 브라이틀링에 이어 스위스 워치 브랜드 중 4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스위스 메이드 브랜드의 자부심과 스와치 그룹 내에서의 독보적인 위상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미도가 특별한 것은 이 때 문만이 아니다. 작년 바젤월드에서 이루어진 <스타일 조션 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도 CEO 프란츠 린더는 미도만의 특별한 디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무브먼트를 어떠한 디자인으로 표현해내느냐 하는 것 역시 브랜드의 클리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도의 특별함은 다이얼과 백 케이스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하이엔드 위치에서만 볼 수 있는 제네바 스타라이프와 블루스 크루를 장착한 무브먼트, 기묘한 패턴의 다이얼이 미도가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에 버금가는 시계임을 자부하는 요소입니다." 이처럼 미도는 '진정한 디자인'의 상징(The Mark of True Design)이라는 브랜드 슬로건과 디자인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디자인을 선보

인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미도의 컬렉션은 세계 곳곳의 유명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세계적인 건축물들의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과 가지는 1백 년 가까이 되는 긴 역사를 지닌 미도 위치의 타임리스한 디자인과 일맥상통하기 때문. 파리 에펠탑의 구조적인 철조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커맨더', 밀라노 갤러리아 비토리오 엠마누엘 II의 이탈리아 건축양식을 모티브로 한 '바젤월드', 시드니 하버 브리지의 강인함을 담은 '멀티포트', 작년 런던 박베를 주제로 디자인 콘테스트를 개최해 1백여 개국, 10만 명의 사람들의 투표로 선정한 '빅벤' 위치까지, 아름답고 클래식한 건축미를 담은 미도 위치의 감각적인 행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또 다른 새로운 기록을 세우다

올해 미도는 기능, 소재, 디자인 등 모든 면에서 고유의 파워풀한 에너지를 더해 변화를 시도했다. 먼저, 모던하면서도 특유의 강인한 카리스마로 두꺼운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멀티포트 컬렉션의 신제품에 주목할 것. 기존의 우아하고 대담한 디자인에 액티브하고 모험적인 요소를 더한 '멀티포트 크로노그래프 어드벤처'가 바로 그 주인공으로, 어드벤처라는 이름에서 예상할 수 있듯 회색이 도는 블랙 케이스에 티프한 브라운 가죽 스트랩을 더해 첫인상만으로도 탐험을 즐기는 남성들을 연상케 한다. 44mm 빅 다이얼은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서의 충격을 견디기 위해 진화세의 PVD 가공 스틸 케이스로 제작했다. 또 브라운 도트 형태의 다이얼, 슈퍼루미노바 코팅한 인덱스와 시침, 분침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완벽한 가독성을 선사해 아웃도어 활동을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최신형 무브먼트인 칼리버 60을 장착해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편칭 디테일로 개성을 더한 브라운 송아지가죽 스트랩은 버클을 안전하게 열 수 있도록 인체 공학적인 폼딩 클래스프를 갖춘 것



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돋보이는 바젤월드 신제품은 바젤월드 40주년 기념 에디션이다. 그중 무광의 블랙 다이얼과 우아하게 폴리싱한 스틸 케이스가 특징인 바젤월드 헤리티지 S는 오토매틱 무브먼트 시계 브랜드 중 가장 얇은, 여성용 6.85mm, 남성용 6.95mm로 선보여 화제가 되었다. 이 제품은 이탈리아 건축양식에서 영감을 받아 직선과 곡선의 섬세한 디테일로 완성한 스틸 케이스와 블랙 다이얼, 블랙 악어가죽 텍스처의 송아지가죽 스트랩이 조화를 이뤄 세련미를 극대화했다. 더불어 기술적으로 강화된 바젤월드 신제품도 만날 수 있다. 바젤월드 칼리버 80 크로노미터 S는 그간 고가의 하이엔드 위치에서만 볼 수 있었던 실리온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해 더욱 강력한 면모를 지어낸다. 기존 밸런스 스프링에 비해 높은 정확성과 내구성을 자랑하고, 파워 리저브 성능을 80시간까지 높여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보여준다. 올해 바젤월드에서는 유독 티타늄 소재를 적용한 시계를 많이 선보였는데, 미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가볍고 내구성 높은 티타늄 소재로 제작한 다이얼 워치, '오션스타 캡틴 티타늄'이 그것으로, 무게가 123g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벼운 착용감, 단일 방향으로 회전하는 베젤과 접이식 잠금장치를 사용한 밴드에 200m까지 방수 능력을 향상시켜 수중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완벽히 충족시켰다. 80시간 이상의 파워 리저브 기능과 COSC 인증 획득으로 정확도를 높인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 밖에도 미도의 상징적인 컬렉션인 커맨더 컬렉션에는 6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의 COSC 인증 무브먼트를 적용한 9백99개의 '커맨더 II 리미티드 에디션'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 여성을 위한 '벨루나'와 '바젤월드' 라인을 강화해 여성 시계 시장의 확장 또한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올 한 해 미도의 기록적인 성장을 다시금 기대해본다. 문의 02-3149-9599 **에디터 권유진**



1 미도의 상징적인 컬러인 옐로우색으로 꾸민 부스. 2 강인한 진화세 케이스와 티프한 노브의 송아지가죽 스트랩이 모험심 가득한 남성들을 연상케 하는 '멀티포트 크로노그래프 어드벤처'. 3 아주 가볍고 내구성 높은 티타늄으로 제작된 다이얼 워치, '오션스타 캡틴 티타늄'. 4 바젤월드 컬렉션 론칭 40주년을 맞아 오토매틱 무브먼트 시계 브랜드 중 가장 얇은 디자인으로 선보이는 '바젤월드 헤리티지 S'. 5 스위스 밸런스 스프링을 탑재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바젤월드 칼리버 80 크로노미터 S.





Modern Times

해밀턴은 브랜드의 역사적 순간을 기록해온 주요 제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브로드웨이'는 처음 론칭하며 새롭게 라인업한 컬렉션이지만, 1890년대에 출시한 포켓 워치에도 같은 이름을 붙인 바 있고, 카키 네이비 프로그램은 1951년의 다이버 워치인 빈티지 모델에서 영감을 얻었다. 남성과 여성을 위한 재즈마스터의 뉴 베리에이션도 등장했다. 미국적 헤리티지와 스위스 기술이 결합된 해밀턴 시계의 매력을 느껴볼 것.

미국적 헤리티지와 스위스 무브먼트의 기술력

올해도 여전히 상당한 수의 신제품을 선보인 해밀턴. 대중에게 가장 매력적인 가격에 질 높은 위치를 선보이는 브랜드 이기에 현장에서든 취재 열기가 대단하다. 미국적인 실용성과 스위스의 완성도, 그리고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 해밀턴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브랜드의 특성을 알 수 있는데, 189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랭커스터에서 탄생한 해밀턴은 미국적 헤리티지와 고도의 정밀함을 갖춘 스위스 무브먼트의 기술력이 결합된 브랜드다. 4백여 편의 할리우드 영화에서 이름을 알려온 만큼, 1951년 대히트를 기록한 영화 <프로그래>에 등장한 시계이자 브랜드 최초의 영화 속 워치였던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을 공개해 시선을 모았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컬렉션 '브로드웨이'를 출시해 브랜드 전반적인 라인업을 재정비한 모습도 눈에 띄는 점이다. 예년에 비해 비교적 적은 수의 신제품을 발표했지만 주요 모델에 보다 집중한 인상을 주었다. 오랫동안 영화계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아온 해밀턴은 브랜드의 정신적 뿌리인 미국과 뉴욕의 전설적인 극장 거리의 정신을 오마주하며 브로드웨이 컬렉션을 새롭게 론칭했다.

사실 해밀턴은 1890년대에 처음 출시한 포켓 워치 시리즈에도 '브로드웨이 리미티드'라는 이름을 붙인 정도로 브로드웨이 거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품어온 것이 사실. 브로드웨이의 불을 밝히겠다는 의미로 탄생시킨 '브로드웨이' 워치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에서 영감을 받은 모던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이 매력적이다. 40mm 데이-데이트 쿼츠, 42mm 데이-데이트 오토매틱, 43mm 오토 크로노 등 세 가지 버전으로, 세련된 블랙 다이얼 중앙을 가로지르는 선명한 라인이 뉴욕의 마천루를 연상시킨다. 고풍 빌딩의 모습을 담은 아틀리케 핸즈와 입체적으로 마무리한 인덱스는 도시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아랑 처리한 핸즈는 브로드웨이의 네온사인이 꺼진 어두운 밤에도 뛰어난 가독성을 전한다. 케

이스 백에 뉴욕의 배수구 커버를 떠올리게 하는 모양을 더해 뉴욕에 대한 오마주를 재미있게 풀어낸 버전은 데이-데이트 쿼츠 모델. 데이-데이트 모델 가운데 날짜 정보가 6시 방향에 자리한 것은 기계식, 3시 방향에 위치한 것은 쿼츠 무브먼트를 탑재했다. 크로노그래프는 100m, 데이-데이트는 50m 방수 기능을 갖추었으며 크로노그래프는 60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칼리버 H-21을 탑재해 품었다. 카키 네이비 프로그램은 브랜드의 빈티지 모델이자 영화에 등장한 기념비적인 시계에 바치는 헌사와도 같다. 해밀턴이 미 해군 특공대(Frogmen)를 위해 특별히 제작했던 다이버 워치이자 1951년 대히트를 기록한 영화 <프로그래>에 브랜드 최초로 영화에 노출된 시계였던 모델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했기 때문. 1951년 모델과 마찬가지로 균용 물통을 모티프로 한 크라운 보호 장치가 돋보이는 이 시계는 46mm 타타늄 케이스와 42mm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으로 선보인다. 타타늄 모델은 고도로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다이버 워치의 모든 특징을 담고 있다. 수심 1,000m 방수 기능, 물속에서 내부와 외부 압력을 균등하게 하는 헬륨 밸브를 갖췄으며 칼리버 H-10은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수중에서도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세계적인 프리다이버 피에르 프롤라가 직접 시계를 차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테스트한 사실은 카키 네이비 프로그램에 대한 완벽한 성능을 입증하며 믿음을 배가시킨 포인트였다.

남성과 여성을 위한 재즈마스터의 뉴 워치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재즈마스터' 컬렉션 특유의 클래식하고 깔끔한 외관이 골드 오토로 갈아입고 다시 태어났다. 재즈마스터 쉐라인 골드는 슬림하고 유려한 실루엣으로 업그레이드된 오토매틱 골드 워치다. 인류 역사와 함께해온 골드는 활기찬 생명력과 광채를 상징하는 귀금속으로, 해밀턴은 이미 1923년 브랜드 최초의 골드 모델을 제작했고 1928년에 또 다른 골드 모델을 출시할 정도로 골드와 오랜

1 올해에도 역시 역동적이고 파우풀한 시계 컬렉션을 선보여 큰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은 해밀턴 부스. 2 이머전션 장면에 바치는 경의의 표현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에서 영감을 받은 '브로드웨이' 워치. 3 해밀턴의 전설적인 다이버워치이자 1951년 대히트를 기록한 영화 <프로그래>에 등장한 시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카키 네이비 프로그램 워치. 4 해밀턴 재즈마스터 컬렉션은 올해 신작인 골드 소재를 다룬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탑재한 쉐 라인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5 알라 세공한 메다오브발의 연꽃 다이얼을 통해 신비로운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엿볼 수 있는, 오직 여성만을 위한 특별한 워치 재즈마스터 오픈 하트 레이디.

시간을 함께해왔다. 40mm 18K 핑크 골드 케이스와 30m 방수 기능을 갖춘 재즈마스터 쉐라인 골드에는 울트라 신 모델에서는 드물게 6시 방향에 날짜창을 만들어 편의성과 가독성을 제공한다. 레트도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수공 스틸링 연도를 기념해 1천8백92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다. 오픈스 루어나 이브닝 룩 할 것 없이 어느 자리에서나 절제된 우아함을 발하는 시계라, 안목 높은 워치 애호가들을 매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품격 있는 남성들에게 재즈마스터 쉐라인 골드가 제격이라면, 고상하지만 주관이 뚜렷한 여성에게는 '재즈마스터 오픈 하트 레이디'를 추천하고 싶다. 우선 디자인이 심상치 않다. 양각 세공한 연꽃 디자인 자개를 물 위에 떠 있는 싱그러움 꽃처럼 입체적으로 표현해 신비로운 느낌을 선사한다. 다이아몬드 컷으로 처리한 오픈 다이얼을 통해 시계의 심장인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손쉽게 감상할 수 있다. 34mm 케이스에 50m 방수가 가능한 칼리버 H-10을 통해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주말에 시계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월요일까지 작동이 될 정도로 긴 시간이다. 연한 그린빛 가죽 스트랩과 화이트 가죽 스트랩, 5단 링크 메탈 브레이슬릿 등 고를 수 있는데, 가죽 스트랩은 간편 클리 시스템을 갖춰 손쉽게 스트랩을 갈갈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문의 02-3149-9593 에디터 권유진



New Minimalism

스와치 그룹 내의 유일한 패션 워치 브랜드 캘빈클라인 워치 & 주얼리. 스위스 워치메이킹 기술력과 모던하면서도 시크한 디자인의 조우로 꾸준히 패션 파퓰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는 뉴 미니멀리즘이라는 테마 아래 순수함(purity), 가벼움(lightness), 심플함(simple shape)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한 신제품을 출시해 눈길을 끌었다.



미니멀리즘으로의 화귀, 캘빈클라인 워치 & 주얼리

'캘빈클라인' 하면 미니멀한 분위기를 완성하는,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룩이 연상된다. 캘빈클라인의 워치에도 그런 무드가 온전히 담겨 있다. 패션성과 디자인을 중시하면서 심플한 스타일을 고수한다. 시계업계로 영역을 확장한 것은 1997년. 2004년부터는 주얼리도 함께 선보여 현대인들의 감성을 충족시키고 있다. 몇 년 전 ck에서 캘빈클라인으로 이름을 재정비하기도 했다. 이제는 패션 브랜드를 넘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도약하면서 브랜드의 가치를 하나로 통일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캘빈클라인 워치 & 주얼리는 디자인이 모던하고 유니크하다. 몇 시즌이 지난 제품을 서로 믹스해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느낌이 전혀 없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이 장점이다. 스와치 그룹의 일원이기에 견고한 스위스 메이드 무브먼트를 탑재했음에도 가격대가 합리적이라는 것 또한 매력 중 하나.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데님 룩부터 포멀한 슈트까지 모두 잘 어울리는 시계를 선보이는 캘빈클라인은 올해 '백 투 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을 메인 콘셉트로 잡았다. 브랜드의 핵심 가치인 미니멀리즘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셈. 소재는 물론 디자인 전반적으로 미니멀 무드를 통일감 있게 연출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시계에 쿼츠 무브먼트를 탑재해온 캘빈클라인은 작년의 큰 성공에 힘입어 이번 바젤월드에서 '인 피니트' 컬렉션을 익스텐션해서 선보이며, 기계식 시계에 대한 요구에 화답했다. '함께하는 지금, 가장 소중한 시간(Life in the Now)'을 담은 광고 캠페인과 배우 김우빈을 아시

아-피서시 모델로 발탁한 것도 눈에 띄는 이슈였다. 2000년대에 첫선을 보인 이후 꾸준히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며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해온 '뉴미니멀' 컬렉션. 올해에는 2016 '뉴미니멀'로 돌아왔다. 1990년대의 딱딱한 미니멀리즘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을 가미한 네오 미니멀리즘 콘셉트의 의상을 선보인 2016 S/S 캘빈클라인 컬렉션을 반영한 결과다. '뉴 미니멀'은 메시 디테일을 더한 다이얼과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스트랩이 특징으로, 12시 방향에는 브랜드 로고를 새겼고, 6시 방향에는 '스위스 메이드' 글자가 자리한다. 그 외의 장식은 철저히 배제해 세련된 스타일로 마무리했다. 시계를 직접 착용해보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무게와 손목에 편안하게 감기는 착용감이 인상적이다. 24mm의 스몰 사이즈와 35mm의 미디엄 사이즈로 출시해 커를 위치로도 그만이다. 화이트와 블랙 다이얼 중 선택할 수 있고, 그레이 컬러의 메탈 스트랩 외에 블랙과 브라운 레더 스트랩 버전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엔 새롭게 등장한 '이븐'은 정제되지 않은 대자연의 대범하고 모던한 조형미를 담은 워치다. 가공하지 않은 듯 거칠고 투박한 질감을 살린 나뭇결 모양의 다이얼이 멋스럽다. 레더 스트랩은 특별한 가공이나 텍스처 없이 매치해 질감이 내추럴한 다이얼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바 인텍스와 핸즈는 역시나 간결하다. 케이스와 리그의 라인도 심플하고 유려하다. 남성용은 42mm, 여성용은 36mm로 다이얼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 스트랩 컬러는 블랙과 브라운으로 선보인다. 모두 ETA 쿼츠 무브먼트를 탑재했고, 30m 생활 방수가 가능하다. 사실 2016 바젤월드에서 선보인 캘빈클라인의 뉴 컬렉션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인피니트'다. 대부분의 시계에 쿼츠 무브먼트를 탑재해온 브랜드의 특성상 손목의 움직임으로



동력을 얻는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했다는 사실은 프레스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단순히 마감한 시침과 분침, 인덱스에는 아랑 물질 슈퍼루미노바를 얹어 어두운 곳에서도 손쉽게 시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였다. 또 투명한 백 케이스를 통해 고가 오토매틱 워치에서만 만날 수 있는 ETA 칼리버를 확인할 수 있다. 수준 높은 도금 기술로 완성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외부 충격과 스크래치에 강한 것이 특징. 블랙과 브라운의 엘리게이터 프린트 스트랩과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 등 세 가지 버전 중에서 고를 수 있다. '클래스'는 페미닌한 스타일을 즐기는 우아한 여성들이 눈여겨볼만한 워치다. 시계 스트랩 사이로 하얀 살결이 드러나는 오픈워크 브레이슬릿은 흔하지 않은 스타일을 완성해준다. 세련미와 관능미를 자아내는 '클래스'는 링크의 형태에 따라 손목에 부드럽게 감기며 3시, 6시, 9시, 12시 방향의 작고 깔끔한 바 인텍스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전한다. 30m 방수 기능을 갖췄고, 국내에서는 실버와 로즈 골드 컬러의 두 가지 메탈 버전으로 선보인다. 문의 02-3149-9563 에디터 배미진

1,3 뉴 미니멀리즘 콘셉트의 컬렉션으로 꾸민 캘빈클라인 워치 & 주얼리 부스. 2 가공되지 않은 듯한 다이얼이 특징인 '이븐' 컬렉션. 4 2016 바젤월드의 주요 제품인, 메시 세공의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을 장착한 '뉴미니멀' 컬렉션. 5 칼리버 ETA 2824-2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탑재한 '인피니트' 컬렉션. 6 구조적인 디자인의 브라운 컬러를 돋보이는 '클래스' 컬렉션.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부쉐론 조이 드 퀴마르 워치,
불가리 세르펜티 인코르티 워치,
그라프 프란세스 바티몰라이 시크릿
워치, 샤넬 화인 주얼리 시그니처
그레나트 시크릿 워치, 부쉐론
이주레 오피 워치, 브레게
필 임페리얼 하이 주얼리 워치,
샤넬 화인 주얼리 시그니처 시피어어
시크릿 워치, 해리 윈스턴 로즈버드
히트 워치.



brilliant Fantasy

바젤월드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시계의 메카니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곳의 진정한 묘미이자 하이라이트는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는 하이 주얼리 워치다. 기계식 시계에 황홀한 광채와 아름다운 티치를 가미한 2016년 하이 주얼리 워치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바젤월드에서 세계 최대 수준의 가평을 기록하는 것이 있다. 바로 시계에서도, 주얼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다이아몬드다. 매년 3월에 개최되는 바젤월드는 시계 산업에 중심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엄연히 '세계 최대의 시계 & 보석 무역 박람회'인 만큼 주얼리와 보석을 선보이는 출과 품의 비중도 상당히 크다. 전 세계 2백여 개의 보석업체가 참가해 최고급 품질의 주얼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이를 감장하는 시스템과 보석 가공을 위한 첨단 기계를 소개하는 등, 주얼 시장의 새로운 기술과 현황을 발표하고 보석의 가격 상승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작년까지 올해는 전반적인 경제 침체 현상으로 다이아몬드와 보석의 판매율이 전체적으로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바젤월드에서 가려진 스톤의 절한 이상을 바젤월드 메인 홀을 차지하는 고급 시계 브랜드에서 구입했다고 하니, 세계에서 다이아몬드와 유색석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나아가 주얼리 워치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다. 바젤월드에서 시계는 복잡하고 진보된 기술을 선보이는 데 무엇보다 집중하지만, 기술력만큼이나 시계의 얼굴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은 물론 더욱 화려하고 발명적인 예술품으로 탄생시키는 것 또한 중요시된다. 그 때문에 아주 작은 다이얼에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새기고 하이 주얼리 피스에서나 특별한 다이아몬드 세공 기법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것이다. 단어 자체만으로도 황홀함과 아름다운 이미지가 연상되는 하이 주얼리와 하이 주얼리 워치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바젤월드에서 올해 가장 주목받은 예술품인 타임피스 소개한다.

거대한 다이아몬드 왕국, 그라프
믿을 수 없이 큰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주얼리와 하이 주얼리 워치, 그것도 하나 이상 무려 수십 개가 외관의 소원도를 화려하게 장식한 그라프 부스. 소원도의 주얼리 피스는 이 다이아몬드 왕국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세상의 모든 다이아몬드와 대체로운 컬러의 화려 보석을 모아놓은 듯, 눈이 부실 정도로 휘황찬란한 그라프의 하이 주얼리와 하이 주얼리 워치의 향연이 부스 입구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펼쳐졌다. 작년 바젤월드에서 출주듯 움직이는 나비를 다이얼에 담은 바티몰라이 워치 컬렉션으로 큰 사랑을 받은 그라프는 올해도 아름다운 나비의 실루엣에서 영감을 받은 시크릿 주얼리 워치인 '프란세스 바티몰라이'를 메인 컬렉션으로 소개했다. 이는 크기가 다양한 리드온 컷 스톤을 파베 세팅한 나비의 날개에 비게트 컷 주얼리로 테두리를 둘러 마치 조각 같이 입체적인 나비 모티브를 형상화한, 아주 특별한 시계다. 혁신적으로 설계한 보석을 누르면 마치 나비가 우아한 날갯짓을 하듯 양 날개가 시뻘히 열리는데, 그 속엔 17mm의 마더오브벌 다이얼이 숨어 있다. 나비의 날개를 구현하기 위해 마스터 장인들은 수개월 동안 디자인 테스트를 거쳤고, 3D 기술을 적용해 나비의 날개와 같은 모습을 정확히 표현했다. 화이트 또는 옐로 다이아몬드부터 그레다이어로 세팅한 시피어어 등 다양한 주얼을 활용한 다채로운 버전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빛과 아름다움, 기쁨을 담은 주얼리 워치, 부쉐론
파리 방돔 광장에서 1백50년의 긴 역사를 사직한 부쉐론은 명실공히 프랑스 최고의 하이 주얼리 브랜드다. 올해는 빛으로 가득한 강에서 영감을 얻은 '조이 드 퀴마르' 워치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빛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강물 위에 잔잔하게 퍼지는 물결을 연상케 하는 이 브레이슬릿 워치는 부쉐론의 아이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모던하면서도 여성스럽다. 총 7,457캐럿, 4백59개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했으며, 시간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작은 열쇠에도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주얼리를 연상케 한다. 이와 함께 선보이는 또 다른 주얼리 워치는 부쉐론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상징적인 새 모티브를 담아 완성했다. 그동안 애플 컬렉션, 팬지 컬렉션, 샹베 컬렉션 등을 통해 자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해온 부쉐론은 이번엔 새롭게 선보이는 '이주레 오피 워치'에서 사랑과 기쁨을 전하는 벌새 한 쌍의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을 묘사했다.

존재만으로도 시선을 사로잡는 뱀의 유혹, 불가리
불가리의 하이 주얼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모티브는 뱀의 형상을 한 '세르펜티'다. 불가리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주얼리이자 스위스에 매뉴팩처를 둔 워치메이킹 브랜드로서, 시계 역사의 해도 1백여 년이 넘는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올해 바젤월드의 하이 주얼리 워치 컬렉션에서는 그들의 주얼 세공 기술을 백분 발휘하며 불멸의 미를 상징하는 세르펜티를 화려하게 부활시켰다. 이를 대변하듯 바젤월드 메인 홀 입구에 위치한 불가리 부스의 쇼윈도에선 세르펜티를 상징하는 모티브와 세르펜티 신제품 워치를 디스 플레이해 행운의 상징이자 한 뱀의 진정한 매력을 보여주었다. 새롭게 재탄생한 '세르펜티 인코르티'는 투르비용 버전을 포함해 우아한 새틴 스트랩 또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주얼 브레이슬릿의 하이 주얼리 워치 등 다양한 버전으로 선보인다. 특히 주얼리 브레이슬릿의 경우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음에도 놀랄 만큼 편안하고 유연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것이 특징. 이는 모든 주얼리 피스를 제작할 때 주얼리가 화려하게 빛나면서도 최상의 편안함을 선사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기 가능한 것이다.

조세핀 황후에게 보내는 경의와 찬사, 브레게
브레게의 수백 년 역사에는 늘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의 이름이 등장한다. 창립자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가 1775년 창립한 이후 고객 명부에 프랑스의 여왕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있었을 정도로 브레게는 아름다운 여성 명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1810년, 브레게가 나폴리 여왕 카롤린 유리를 위해 제작한 최초의 손목시계를 지금까지 오마주하고 재해석해 선보이고 있는 것 역시 이 역사적 사실을 고스란히 증명한다. 올해도 브레게는 브레게를 사랑한 여성 명사를 오마주한 하이 주얼리 워치를 선보였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첫 아내 조세핀 황후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제작한 '필 임페리얼 하이 주얼리'가 그 주인공.



하이 주얼리의 판타지, 샤넬 화인 주얼리
바젤월드의 샤넬 화인 주얼리 부스를 방문할 때면, 이들이 또 우리에게 어떤 아름다운 판타지를 선물할까, 기대감에 사로잡힌다. 샤넬 화인 주얼리는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출시한 레 에펠레 샬 드 샬 컬렉션을 통해 새로운 하이 주얼리 워치 모델을 선보여왔다. 올해는 샤넬의 아이코닉 팔링 패턴을 키 모티브로 선정해 금실과 은실을 섞어 잔디에 패브릭처럼 주얼리를 심세하게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볼드한 하이 주얼리 브레이슬릿처럼 보이지만 중앙에 자리 잡은 미려 효과의 스퀘어 다이아몬드를 오픈하면 그 안에 럭셔리한 워치 다이얼이 실려서 지태를 드러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267캐럿의 센터 스톤을 중심으로 라운드형 다이아몬드와 16개의 각진형 조각으로 파베 세팅한 팔링 패턴의 '시그니처' 다이얼 시크릿 워치부터 핑크 모나코, 매혹적인 쿼츠 컷 가시 등 시선을 강탈하는 아름다운 스톤들을 다룬 다양한 시크릿 워치를 선보인다. 이 모든 컬렉션에는 샤넬 화인 주얼리의 쿼터 정성을 담아 장인들의 손끝에서 정교하고 아름다운 창조물들 탄생했다.

로맨틱한 순간을 더하다, 해리 윈스턴
1989년 워치메이킹 세계에 뛰어난 해리 윈스턴은 2007년 재비애자 자사 워치 매뉴팩처를 오픈하면서 본격적인 워치메이킹 브랜드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후 2013년에 소위 그룹에 인수되면서 시계 산업에 리드하는 선두 주자이자 고유의 완성적이고 유니크한 디자인을 모두 갖춘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선보인 주얼리 워치는 세계에서 가장 달콤한 단어, 사랑이다. 바젤월드에서 선보인 가장 사랑스럽고 로맨틱한 하이 주얼리 워치 컬렉션은 큐피드의 활짝 핀 하트 세피의 다이얼을 품은 해리 윈스턴의 '로즈버드 히트 워치'다. 화이트 골드 채인과 매치해 네크리스로, 우아한 블랙 새틴 스트랩을 장착해 손목시계로 착용할 수 있다. 에디터 권유



a passion for Art

“전 바젤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일도 바로 이곳에서 시작했어요. 그 당시 바젤은 예술이 발달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60년이 지난 지금, 전 여전히 같은 곳에서 아트 딜러이자 파운더로 일하고 있죠.” 에른스트 바이엘러 여기, 자신의 근간이 바젤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큰 자부심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 바젤이라는 한 도시의 저력이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아트 컬렉터와 세계 최대의 아트 페어인 아트 바젤을 탄생시켰다. 바젤이라는 작은 도시에 조용하고 품위 있게 예술의 꽃을 피운 바이엘러 재단 미술관을 찾았다. *photographed by koo eun mi*

세계 미술계를 지휘하는 바이엘러 재단 미술관

바젤 중심부에서 트램으로 약 15분 거리, 바젤의 끝자락인 리헨(Riehen), 바젤이라는 작은 도시에서도 생소한 이곳에 수수해 보이는 붉은색 벽돌로 둘러싸인 미술관이 있다. 1997년에 개관한 이곳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나 뉴욕의 모마 미술관처럼 규모 큰 미술관이 아닌, 목가적인 아름다운 정원에 자리 잡은 바이엘러 재단 미술관이다. 조경 건축가 파울 손홀처(Paul Schonholzer)와 요헨 비데(Jochen Wiede)가 만든 매듭 모양의 산책 길을 따라 깊숙이 들어가면 지금까지 보아온 현란한 미술관과는 조금 다른, 마치 별장처럼 보이는 건축물이 작은 언덕과 함께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단순하면서도 범상치 않은 건물은 파리의 폼피두 센터, 휴스턴의 메널 컬렉터 박물관을 설계한 건축가 렌초 피아노의 작품이다. 마치 품위 있는 사람의 개인 별장과도 같은, 작지만 존재감이 확실한 이 미술관은 바젤을 대표하는 아트 딜러이자, 바젤이라는 도시를 예술의 도시로 만든 아트 역사의 거인, 에른스트 바이엘러(Ernst Beyeler)의 소장품을 모아놓은 곳이다.

렌초 피아노라는 위대한 건축가의 터치, 청동 인물상으로 현대미술의 상징이 된 알베르토 자코메티, ‘월경 아트’로 열풍을 일으킨 마크 로스코와 클로드 모네가 모두 모여 있는 이 미스터리한 미술관의 담장을 넘어서면 작지만 아름다운 정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오로지 리드미컬한 새소리만 들리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바이엘러의 정원은 원래부터 이곳에 뿌리내린 나무처럼 조형물들이 잔디밭, 혹은 나무 사이에 무심하게 자리 잡은 모습이 눈에 띈다. 여기서 반전이 펼쳐진다. 목가적인 풍경 사이에 놓인 이 조형물들이 하나같이 세계적인 명성과 가치를 지닌 유명한 작품이라는 사실. 특히 무성한 나무를 배경으로 놓인 알렉산더 콜더의 나무(The Tree, 1966)는 파리 라테팡스에서 본 거대하고 구조적이 더 차갑기까지 한 그의 작품과는 다르게, 메달 구조물임에도 서정적이고 따스한 느낌이 가득하다.

바젤에서 위대한 아트 딜러가 탄생하기까지

이 공간을 탄생시킨 에른스트 바이엘러는 바젤이라는 도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스위스는 권위 있는 공공 아트 뮤지엄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개인 아트 컬렉터가 무수히 많다는 점에서 축복받은 국가다. 특히 인구가 고작 20만 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인 바젤에는 바이엘러 재단 미술관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 미술관인 쿤스트 뮤지엄과 바젤 시립 미술관, 텅겔리 미술관, 샬올라거 미술관 등 무려 약 27개의 미술관이 있다. ‘뮤지엄 시티’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닌 셈이다. 이러한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바이엘러는 바젤을 파리, 런던, 뉴욕과 견줄 만한 아트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었다. 작품을 선택하는 남다른 안목과 취향을 갖춘 위대한 컬렉터이자 아트 딜러, 그리고 뮤지엄 파운더인 에른스트 바이엘러와 바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그와 나눈 대답을 담은 책 <A Passion for Art>에서 언급한 바 있듯, 그는 바젤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바젤에서 성공적인 업적을 일궈냈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럽 아트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는 바이엘러는 20세기를 주도한 거의 모든 아티스트들의 전시를 약 2백50회 개최했고, 무려 1만6천 점의 역사적인 그림과 조각품이 그의 손을 거쳤다. 무엇보다 그는 파카소의 작업실에서 직접 작품을 고르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장 뒤뷔페의 작품을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대리인 역할을 했으며 칸딘스키의 작품을 그의 미망인과 함께 공동 관리하기도 했다. 또 알베르



토 자코메티 재단을 만들고 방대한 파울 클레의 컬렉션을 사들였으며, 인상파부터 후기 인상파, 클래식 모더니즘, 칸딘 퍼러리 아트에 이르기까지 아티스트 약 40명의 눈부신 컬렉션을 구축해왔다. 이처럼 우수한 예술 작품과의 긴밀한 관계, 수많은 전시를 조직화하고 시스템화한 풍부한 경험, 파워풀한 작품을 끊임없이 찾아온 수십 년의 시간을 통해 바이엘러는 자신만의 남다른 안목과 풍부한 식견을 키웠고,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인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또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가 설립한 세계 최대의 미술 장터, 아트 바젤 페어는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어 오늘날까지 전 세계 미술계를 리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나이가 1997년에 비로소 그의 역사적인 소장품을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 바이엘러 재단 미술관을 오픈했다.

자연과 아트가 융화된, 기능에 충실한 건축물

앞에서 언급했듯 바이엘러 재단 미술관의 모습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나 뉴욕 모마 미술관처럼 관람객을 압도할 만큼 스케일 큰 미술관과는 거리가 멀다. 예술 작품을 최대한으로 배려한 독특한 구조와 건축물, 아트, 자연환경이 놀라울 만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을 본다면 서정적이고 따스한 이 미술관의 매력에 단번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 건축가 렌초 피아노는 에른스트 바이엘러의 의견을 반영해, 너무 드러내지도, 과시하지도 않으면서 절제된 미를 보여주는 미술관을 탄생시켰다. 바이엘러가 고민 없이 단번에 선택한 건축가 렌초 피아노는 기능에 충실한 건축물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랜드마크가 될 만한 건축물보다는 그 공간에 맞는, 그곳에 필요한 건축물을 짓고, 무엇보다 전시물이 잘 드러나게 하도록 건축적 요소를 최소한으로 절제하는 것이 렌초 피아노가 고수하는 철학이다. 바이엘러는 바로 이런 그의 기능적이고 독창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바이엘러의 요구 사항 중 하나는 그가 태어나고 뿌리를 내린 바젤의 상징적인 건축물이자 역사를 대변하는 라타우스 시청 건물의 적벽돌을 미술관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전시 투어를 위해 만난 바이엘러 관계자는 건축물의 외관을 설명하며 “그 벽돌은 물에 쉽게 색이 바래는 단점이 있어 이와 가장 흡사한 파타고니아산 붉은색 반암을 사용했어요. 바이엘러가 직접 돌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컨택했을 만큼 그는 이 건축물의 첫인상을 좌우할 외벽을 건축하는 데 굉장히 까다롭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죠”라고 그날을 회상했다. 예술 작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그와 그의 아내, 힐디 바이엘러가 좋아하는 작품을 소장하고, 공간을 예술로 꾸민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바이엘러의 목표였다. 또 이곳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는 아트에 대한 관심을, 기성세대에게는 예술에 관한 넓은 시선을 심어주는 교육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했기에 이들의 만남은 기존 상식과는 전혀 다른 품위 있는 미술관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자 건축학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불투명한 유리로 제작한 지붕이다. 이는 단순한 지붕이 아니라, 공간을 따스하고 아름답게 비추

는 조명이자 에어 캔디장 장비라는 사실이 더욱 놀랍다. 유리 너머 들어오는 태양광은 매우 고요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조성해 관람객들이 가장 편안한 빛 아래에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실제로 전시장 곳곳에 배치된 의자가 앉아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동안 도시 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상황이 사라지고 몸이 느긋해질 만큼 편안하게 느껴진다. 이 특별한 천장에는 바깥 날씨, 채광 상태, 내부에 디스플레이한 작품에 따라 빛을 조절하는 센서를 장착해 흐린 날씨에도, 가을과 겨울에 비 오는 날에도 자연광이 적절하게 작품의 컬러 속으로 녹아든다. 특히 빛에 민감한 파울 클레의 작품을 전시할 전시실에는 천장의 레이어를 한층 더 추가해 더욱 은은한 빛이 들어오도록 설계했다고 하니 역시 공간을 위한 빛의 미술사, 렌초 피아노답다.

60년간 이어져온 약 2백50여 점의 바이엘러 컬렉션

전원적인 이 미술관을 가득 채운 작품의 스케일은 대단하다. 바이엘러가 사랑한 파카소의 작품은 무려 35점에 달하고, 앙리 마티스, 세잔, 칸딘스키, 몬드리안, 페르낭 레제, 호안 미로, 막스 에른스트, 파울 클레, 알베르토 자코메티, 알렉산더 콜더, 장 뒤뷔페, 앤디 워홀, 마크 로스코의 그림까지 방대한 양의 진귀한 컬렉션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 전시장의 몇몇 공간에는 유럽과 미국 작품 사이에 아프리카, 알래스카 등지에서 수집한 부족 미술의 작품이 함께 진열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흥미로운 연출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클로드 모네의 ‘수련(Water Lilies, 1916)’이 전시된 공간이다. 이 전시관에 들어서면 마치 그림 속 언뜻 창밖에 펼쳐진 실제 연꽃 언덕과 연결된 듯한 환상적인 효과를 선사해 마치 모네의 정원에 초대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더불어 전 전시관에서는 창밖 풍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거대한 사이즈의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황동 조각상을 볼 수 있다. 전시관 앞에는 관람객들이 실 수 있는 톱로 형태의 라운지가 마련되어 있다. 라운지의 안락한 긴 소파는 네모난 창밖을 바라보게끔 배치했는데, 이는 풍경조차 작품으로 탈바

꿈시킨 바이엘러와 렌초 피아노의 합작품이다. 바이엘러 미술관에서는 영구적인 소장품 전시 외에도 1년에 네 번, 현대 작가들과의 상설 전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실제 프랑스 화가이자 조각가 장 뒤뷔페는 바이엘러의 도움으로 유명해진 작가 중 한 명이기도 하다(스타일 조선일보) 팀이 방문한 지난 3월에 한창 이 위대한 작가의 상설전이 전시되고 있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비트라 뮤지엄과의 공동 프로젝트인 ‘24 Stops’를 오는 6월 아트 바젤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바이엘러에서부터 비트라 뮤지엄까지 걸어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길을 따라 24개의 작품을 전시하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프로젝트다. 또 미술관 옆에 새로운 미술관을 지을 예정으로 현재 11명의 건축가가 경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한다.

장소의 정신, 바젤과 바이엘러

이처럼 바이엘러 재단 미술관은 공간 자체가 살아 있는 아트이자 생동하는 뮤지엄이다. 더불어 아티스트들에게는 기회의 장이고 영감의 장소다. 과거부터 그가 별세한 후인 지금까지도 유럽 예술계에서 바이엘러는 그 이름 자체가 믿을 만한 보증수표이자 브랜드로 통한다. 지난 2010년 바이엘러 재단 미술관에서 바스키아 회고전이 열렸을 때, 그해 아트 바젤에서 바스키아의 작품이 쏟아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바이엘러가 개최하는 전시는 아트 바젤은 물론 다른 대형 미술관의 전시 일정을 바꾸게 할 뿐 아니라 전 세계 아트 시장을 뒤흔들 만큼 영향력이 크다. 여기서, 그가 프랑스나 뉴욕 출신이 아닌 스위스 바젤 출신이자 그곳을 기반으로 한 아트 딜러라는 사실에 다시 한 번 주목해야 한다. 관광 도시가 아닌 바젤에 위치한 이 작은 미술관이 개관한 이래 6백만 명의 전시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하니,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지닌 도시의 저력과 한 사람의 인생이 만나 예술적 풍요로움을 이끌어냈다는 결론을 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생동하는 도시와 지방권을 흡수해 전 세계를 뒤흔드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아름다운 조우, 우리가 바젤과 바이엘러의 만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스타일** 권유진(바젤 현지 취재)



interview
Sylvian Dolla



HAMILTON

Legendary Revive

재작년 국내에서 폭발적인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 (인터스텔라)를 이끈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다른 아닌 해밀턴 시계였다. 해밀턴은 올해에도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남다른 창의력과 혁신을 담은 전설적인 워치 컬렉션에 대해 이야기한다. 해밀턴 CEO 실비아 돌라와 나눈, 해밀턴의 흥미로운 비전.

01 올해 해밀턴의 바젤월드 부스에서 주목해야 할 시계는 무엇이고, 대중의 반응은 어떠한가? 작년에 비해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1951년 영화 (프로그래머)에 처음 등장한 해밀턴의 전설적인 시계, 프로그래머 키키 프로그래머 컬렉션으로 화려하게 부활했고, 뉴욕의 전설적인 극장의 정신을 오마주한 새로운 컬렉션인 '브로드웨이'를 선보이기 때문이지요. 이 두 가지 워치 컬렉션에 대한 피드백은 거의 폭발적이었습니다.

02 브로드웨이 컬렉션의 광고 비주얼을 봤다. 광고가 아닌 영화 속 장면처럼 감성적이고 공감을 유발하게 하는 비주얼이라는 점에서 신선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스토리를 전달하기를 원했나? 이번 브로드웨이 컬렉션 캠페인을 통해 우리 이전 것들보다 더 역동적인 무언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광고에는 처음으로 한 명이 아닌 많은 인물이 등장하며 저마다 서로 복잡한 내면의 거리와 함께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지역은 젊고 역동적이면서 현대적입니다. 마치 리랜드 해밀턴과 해밀턴의 고객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 광고를 통해 대중이 에메리칸 드림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03 해밀턴은 영화 산업과 떼어놓고 볼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다른 시계 브랜드의 영화 속 캠페인과 비교하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해밀턴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해밀턴은 1951년 영화 (프로그래머)에 처음 등장하면서 영화와 함께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영화 속 캐릭터가 시계를 단순히 착용하는 것과 달리 해밀턴은 파트너십을 맺었고, 영화 속에서 적절한 역할을 맡았어요. 예를 들어 영화 (앤니홀라)에서 해밀턴 밴쿠버 시계가 영화의 미래 지향적인 느낌과 아주 잘 맞아떨어졌던 것처럼요. 해밀턴은 특별히 그 영화를 위한 시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속 마피의 시계 역시 그 작품만을 위해 제작한 하나의 영화 속품이었죠.

04 한국에서 해밀턴 워치의 위상이 나뉘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시계 시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가? 한국은 해밀턴에 있어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시장이자 빠르게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마켓입니다. 사실 한국 시장은 작년에도 메르스 발생이라는 큰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브랜드가 마이너사 성장을 보일 때, 해밀턴은 현지 고객 세일

즈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았죠. 올해는 다시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아 판매 기회를 늘리고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국의 홍보대사인 다니엘 해니를 통해 브랜드를 알릴 계획입니다.

05 올해 오직 여성만을 위한 재즈마스터 워치를 선보였는데, 여성 고객에게 해밀턴 워치를 어떻게 어필할 예정인가? 전 세계적으로 해밀턴의 주 고객층은 남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력한 여성 오토매틱 시계도 가지고 있어요. 매우 우아하면서도 정밀한 재즈마스터 오픈 하트 레이디가 전형적인 예죠. 우리 이미 2013년에 론칭한 재즈마스터 스키투레 레이디가 베스트셀러 10위권에 드는 성공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해밀턴은 50년~2백만년대의 폭넓고 합리적인 가격대로 아름답고 품질이 뛰어난 여성 워치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6 해밀턴의 수많은 컬렉션 중 당신이 유독 애정을 갖는 시계는? 저는 개인적으로 강한 개성과 밀러티의 헤리티지를 지닌 카키 필드 컬렉션을 가장 좋아합니다. 올해 필드 컬렉션에는 4개의 새로운 제품을 선보입니다. 3개의 블랙 PVD 버전과 해밀턴 고유의 느낌을 담은 누백 소재 스트랩 시계로, 남성적인 카라미시를 지녀 매우 매력적이지요.

07 해밀턴 워치를 치아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떠한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가? 해밀턴 시계는 뛰어난 마감 디테일과 강한 개성, 오랫동안 지속되는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오토매틱 시계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누스 시계의 신뢰성과 함께 최고급인 특별한 무언가를 원하는 개성 있는 고객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디터 권유진

1 해밀턴의 2016년 메인 신제품을 전시한 부스. 2 전설적인 디어비 워치에 대한 헌사, 카키(내버) 프로그래머 워치. 3 연못 못보의 워치인 다이얼을 통해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는 여성용 오토매틱 워치, 재즈마스터 오픈 하트 레이디.



HERMÈS

Haute Horlogerie

매년 시계를 넘어 하나의 아트피스로 간주되는 메티에 디르 컬렉션과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는 다채로운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를 선보이는 에르메스는 올해 또 어떤 놀라운 시계를 선보였을까. 에르메스 CEO 로랑 도르데가 전하는, 에르메스의 2016 바젤월드.

01 매년 명품업계의 리더로서 바젤월드에서 워치 브랜드를 참가한다는 것은 더 긴장되는 일인 듯하다. 에르메스에 바젤월드는 어떤 의미인가? 바젤월드는 에르메스 시계가 외부로 소통하는, 한 해의 가장 특별한 날 중 하나입니다. 물론 바젤월드 외에도 판매로 이어지는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젤월드는 에르메스 시계 판매의 1/3을 차지하는 독립적인 파트너들과 직접 대면해 관계를 형성하고 에르메스의 시계를 소개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매년 에르메스의 부스를 방문할 때 가장 기대되는 컬렉션은 '메티에 디르' 컬렉션이다. 그만큼 궁극적인 아름다움과 시계의 가치를 모두 전달하는 아트 피스는 에르메스에 어떤 의미인가? 에르메스가 선보이는 모든 시계는 품질과 우수성, 창조성, 유니크함을 바탕으로 합니다. 창조적인 면을 보자면 에르메스는 매년 파리에서 정하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합리적인 컬렉션을 만듭니다. 자연으로의 절주라는 올해의 주제는 특히 악셀샤를 피스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음영의 느낌을 기미한 에펠 기법인 에미유 웅보랑처럼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선보인 '아브 타기어나 동물화가 로베르 달레의 그림을 조각 세공, 인그레이빙 기법, 에펠링 기법을 동시에 사용한 '솔림 데르메스 포켓 펜터'처럼 창의적인 정인 정신이 돋보이는 제품들은 에르메스가 얼마나 메티에 디르 컬렉션에 집중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03 메티에 디르 컬렉션의 장인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커뮤케이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통 장인과 에르메스의 만남과 그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를 통해 커뮤케이션합니다. 에르메스 브랜드 고유의 DNA를 담아낸 시 장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담는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협업을 진행합니다. 직접 진행 방식은 컬렉션에 따라 다르며, 에르메스가 표현하고자 하는 디자인을 가장 아름답게 구현해낼 수 있는 장인을 찾아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가끔은 반대로 새로운 장인의 기법을 기반으로 이에 맞는 메르메스인의 디자인을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04 작년에 선보여 에르메스 워치의 얼굴이 된 솔림 데르메스를 올해에도 주목적으로 선보인다. 첫선을 보인 이후 피드백과 성취는 어떠한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솔림 데르메스의 판매율은 매우 좋습니다. 일반 기계식 시계 뿐만 아니라 퍼페추얼 캘린더 모델 역시 판매 성과가 좋았어요. 이는 지난 11월 GPHG에서 캘린더상을 수상한 것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용 제품의 경우 일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한국에서는 여성과 남성용 모두 매우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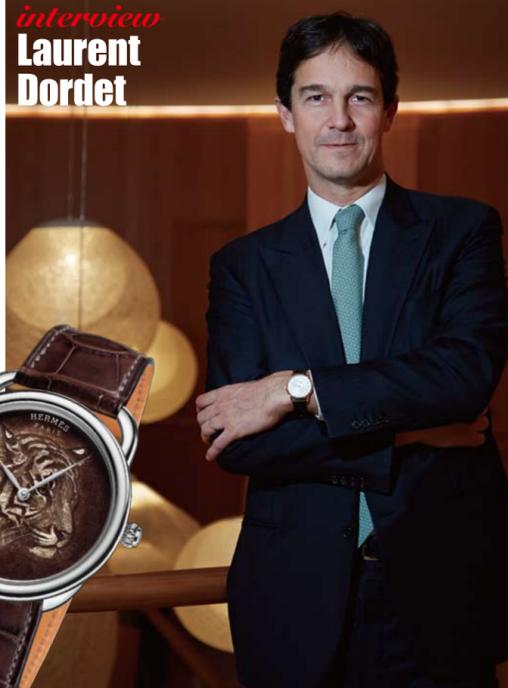
05 패션 하우스인 에르메스 브랜드의 특성상, 에르메스에서 하이엔드 워치 라인을 선보이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도 있다. 어떤 방식으로 이를 널리 알릴 생각인가? 에르메스는 이제 시계 전문가와 고객에게 진정한 시계 제조사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꾸준한 인수 합병으로 보체의 매뉴팩처 무브먼트와 조셉 에라드의 케이스, 니테미의 다이얼, 그리고 스트랩까지 다양한 시계 제조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 제조사의 합병을 통해 우리는 시계 제조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시계 제조의 모든 과정에 대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유연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 시계 제조사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06 향후 5년 안에 에르메스 워치에서 이루고 싶은, 이루야 할 목표가 있는가? 에르메스는 브랜드의 강점으로 할 수 있는 숙련된 워치메이킹 기술과 창조적인 발상, 부티크의 네트워킹, 리테일 파트너십과의 특별한 관계를 토대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다른 브랜드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시계를 꾸준히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시계 전문가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적으로 향상된 제품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에디터 권유진

1 새로운 에펠 기법인 에미유 웅보랑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완성한 '아브 타기어' 워치. 2 이름없고 미스터리한 에르메스의 부스는 퍼블리시티와 불리며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인기 부스 중 하나다. 3 아름다운 에펠 다이얼을 감상할 수 있는 솔림 데르메스 에펠링 광루.



바젤월드 현장



interview
Laurent Dordet



OMEGA

Master of Time

작년 바젤월드에서 새로운 인증 시스템인 마스터 크로노미터를 발표해 세계적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올해도 마스터 크로노미터의 혁명을 이어가기 위한 혁신적인 워치를 선보인 오메가. 스위스 워치메이킹 산업에서 더 까다롭고, 더 높은 품질 기준을 제시해 세계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이들의 행보에 대해 오메가 CEO 스티븐 우르쿠르트와 이야기를 나눴다.

01 올해는 유독 바젤월드에 참가한 많은 시계 브랜드들이 완전히 새로운 시계나 기술을 앞두어 선보이기보다 기존 제품의 소재나 스트랩 등에 변화를 주는 식의 다소 소극적이고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글로벌 워치 마켓의 분위기와 관계가 있는가? 바젤월드는 근본적으로 기계식 시계를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그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브랜드의 가치나 유산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추구를 하죠. 오메가도 매년 새롭게 선보이는 시계에서 과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우리 고객들은 변화무쌍한 트렌드에 휩쓸리기보다는 브랜드의 풍부한 유산에 대해 알고 싶어 하고, 그에 대해 매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바젤월드에서 아주 새로운 무언가를 찾고 있다면 올해 선보인 시계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말입니다. 눈에 띄게 변화하지 않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무브먼트를 만들고 새로운 소재에 환호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02 올해 바젤월드에서 오메가가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미션은 무엇이었나? 우리는 고객이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서 일관된 모습을 유지하리라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혁신을 꾀하고자 오메가가 지닌 가치에 반하는 것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메가는 기계식 시계에서 독보적인 품질을 자랑할 것이고, 이 또한 계속 이어가야 할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03 바젤월드는 미래의 시계 산업을 전망하고 논하는 교류의 장이다. 이번 바젤월드에서 인상 깊었던 이슈가 있었나? 워치 마켓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기계식 시계 재조, 브랜드, 특히 스위스 메이드 워치 브랜드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고객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브랜드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전통적인 테크놀로지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가장 본질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지요. 올해 기계식 시계의 가장 큰 변화는 결모습, 즉 룩(look)의 변화입니다. 기계식 시계에 혁신적인 소재를 적용하는 것처럼요. 오메가에서는 굉장히 시련된 세라믹과 러버 소재로 만든 베젤을 예로 들 수 있어요.

04 (스타일 조산일보) 팀은 이번 바젤월드 기간 중 스위스 바젤에 있는 오메가 뮤지엄을 방문했다. 오메가에 이 뮤지엄은 어떤 의미인가? 오메가 뮤지엄을 직접 방문해주셨다니 감사드리고, 이를 즐기셨을 바랍니다. 저희는 오메가의 히스토리를 담은 이 뮤지엄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메가의 스토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메가는 아주 깊고도 특별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심해 탐험, 우주여행, 그리고 제임스 본드의 캐릭션까지. 이는 다른 브랜드와는 견줄 수 없는 소중한 특별한 여정입니다. 오메가 뮤지엄은 이러한 오메가의 이야기를 쓰고, 시계를 사랑하고, 시계의 역사, 나아가 인류의 역사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대중과 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오메가의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5 바젤에 위치한 오메가 팩토리를 방문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점은, 건물 전체에서 마스터 크로노미터 무브먼트만 생산한다는 사실이었다. 이를 구축하기까지 얼마간의 기간이 소요되었는지, 그리고 새롭게 추가하거나 변경한 시스템과 시설이 있는가? 마스터 크로노미터 테스트 실험실과 프로덕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과 고민 작업이 뒤따랐습니다. 기존 공장의 구조를 변경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도전이었죠. 도전성을 통해 어려운 일을 더 많이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현재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전체 시설을 이 건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06 올해는 유독 신소재에 대한 이슈가 많았다. 이를 컬러 이슈와 같이 트렌드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시계 산업에 있어 소재의 중요성에 대해 다른 관점이 있는가? 컬러 트렌드가 시계 시장에서 많은 것을 바꾸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전 컬러 이슈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새로운 소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몇몇 소재는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이지요. 기술의 발전과 변화 덕분에 이제는 상충되는 소재끼리 서로 섞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소재들은 새로운 컬러 조합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신소재들이 디자인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흥미롭게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07 인증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증 기간을 늘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인가? 오메가가 이 두 가지 분야에서 다른 워치 브랜드보다 앞장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지만, 이는 오메가 스스로 자체적인 기준을 향상시키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우리의 전통을 버릴 수 없고, 이런 체계 안에서 품질 향상 에 늘 힘써야 합니다. 오메가의 시계가 시계업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힘든 인증 테스트에 통과하면 우리 시계가 이 시계들을 아주 당당하게 선보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오메가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스위스 워치메이킹 산업 전체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에디터 권유진



interview
Stephen Urquhart



1 이보다 더 사실적일 수 있을까. 문베르트의 달에서 우주 비행사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하게 제작한 '스타디아스터 로메이오' 워치. 2 오메가의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은 스위스 계속혁신학회(METAS)의 공식 인증을 받는다. 3 오메가의 오랜 히스토리를 한자리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바젤 오메가 뮤지엄.





The Constant Evolution



바젤월드에서 열리는 시계의 도시 바젤에서 하루 1시간 떨어진 바젤, 그곳에서도 수많은 시계 브랜드들이 모여 있는 빌레레는 스위스 시계 역사의 시작이자 근본이 된 곳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성장해 현재 스위스 시계 시장을 리드하는 오메가의 공장이 리뉴얼하면서 제작 공정의 새로운 분기점을 맞았다. 지난해 메타스와 협업해 새로운 인증 시스템인 마스터 크로노미터를 발표하고, 최초의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워치인 글로벌마스터를 발표하는 과정과 그 결과가 올해 더 큰 결실을 맺은 것이다. <스타일 조선훈>은 오메가의 바젤 공장을 직접 찾아가 그 진화의 현장을 확인했다.

기술력의 끊임없는 진화, 오메가 마스터 크로노미터

오메가는 거대한 브랜드지만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한다. 지금까지 오메가가 걸어온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을 정도다. 시계 역사를 넘어 근현대의 면면에 오메가의 이름이 아로새겨져 있다. 깊은 심해로 떠나는 탐험을 기록하는 최초의 시계가 오메가였고, 올림픽에서 모든 기록의 순간에 오메가가 있었다. 달리기 경주에서 정밀하게 순위를 매기기 위한 동영상 기록기부터 0.0001초 단위로 순위가 갈리는 수영 경기를 위한 독점적인 기록계를 개발하기도 했다. 일반적인 기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동량을 계속하는 세일링 경주를 기록하기 위해 올림픽에서 사용하는 기술도 공식적으로 오메가의 몫이다. 인류 최대의 도전이었던 달 착륙을 위한 계측기를 만드는 것은 물론, 인류 최초 우주인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시계도 오메가라는 것은 마치 거짓말 같은 이야기다. 케네디 대통령이 달 착륙을 발표하는 데 국민 연설을 할 때 오메가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어쩌면 오메가가 지어낸 완벽한 사나리오라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역사는 찬란하다.

오메가가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기술력 덕분이다. 뛰어난 완성도, 정확도에 대한 집념과 확신은 스위스 시계 시장을 리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970년대 쿼츠 파동이 시계 시장을 지배했을 때, 모두가 기계식 시계의 종말을 외쳤지만, 오메가는 새로운 기계식 무브먼트

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스위스의 위대한 유산인 기계식 시계가 사장될 위기에 처했을 때 올림픽과 달 착륙을 통해 쌓은 대중적인 인기와 이를 통해 얻은 자본을 기반으로 스위스 시계 역사를 지켜낸 것이 오메가인 것이다. 위대한 시계 천재, 조지 다니엘스가 만든 코-엑시얼 무브먼트를 오메가의 독점 기술로 채택한 것도 이 시점이다.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결국 기계식 시계는 오랜 역사에 담긴 가치를 재조명받았고, 지금의 오메가는 코-엑시얼 무브먼트를 장착한 채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오메가의 기술력이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오메가가 공방 시스템으로 소수에게 공급하는 최고급 하이엔드 워치메이킹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까지 고려하는 대형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대중적인 브랜드로 성장해 상당한 수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면 이 과정을 지켜낼 힘이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그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 모두가 기계식 시계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COSC(스위스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 인증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오메가는 놀라운 금액을 투자해 스위스 공식 계측 기관인 메타스(METAS, 스위스 계측학연방학회)와 협업해 새로운 마스터 크로노미터라는 인증 시스템을 개발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선 그 기술을 계측하는 본질적인 기준 자체를 높이 세웠다는 것에 그 의미가



1,3 바젤에 위치한 오메가 매뉴팩처,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시스템을 구축한 메타스 연구소(METAS Lab)가 함께 위치하고 있다. 2 마스터 플래닛 오션 컬렉션 4,5 오메가는 15,000가우스 자기장 노출 후 무브먼트의 정성 구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시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안했다. 6 스피드마스터 문패즈. 7 여섯 가지 다른 포지션에서 크로노미터 기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무브먼트만이 아닌 시계 자체의 완성도를 측정하는 과정이다. 8 바젤 매뉴팩처의 조립 라인에서는 오메가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900과 8901을 생산한다. 9 메타스와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 완성한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서, 올해 총 여섯 가지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무브먼트를 선보였다. 2020년까지 기계식 시계 대부분에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 스피드마스터 문패즈 모델에 장착한 칼리버 9904. 11-14 바젤에 위치한 오메가 뮤직어폰은 단일 시계 브랜드로서 가장 오랜된 뮤직어폰이다. 시계 발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15 글로벌마스터 애크시얼 컬렉션.



있다. 소비자들이 스위스 메이드 브랜드의 시계를 선호하는 이유는 어떤 시계 브랜드보다 품질 높은 제품을 생산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하이엔드 위치를 위한 인증이 많은데, 지난 2014년 12월 오메가는 메타스와의 공조로 새로운 크로노미터 공식 인증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발표했고, 이 과정을 통과한 6개의 새로운 오메가 무브먼트가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아 바젤월드에서 소개되었다. 메타스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15,000가우스 자기 테스트를 포함해 총 8개의 실험을 거쳐야 한다. 물론 이 기준은 COSC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다. 올해 바젤월드에서 써마스터 플래닛 오션 라인 전체와 여성을 위한 새로운 컨스텔레이션 스몰 세컨즈 모델, 블루 다이얼과 달 모티프가 특징인 스피드마스터 문패즈를 포함한 오메가의 제품 반 이상이 메타스의 마스터 크로노미터 공식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오메가는 모든 시계에 이 인증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도입하고, 보증 기간을 4년으로 늘려 이 인증을 통과한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까지 높였다. 이러한 마스터 크로노미터 론칭의 기반이 된 바젤의 오메가 공장은 메타스 연구소와 함께 운영되기에 더 의미가 깊다. 시계 제작 공정의 가장 큰 적인 먼지를 컨트롤하는 데 첨단 시스템을 도입했고, 고객이 시계를 받는 순간까지 완성도 높은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물류까지 완성도를 높인다. 이렇듯 시계 유통 시스템까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브랜드는 많지 않다. 생산성과 효율, 퀄리티와 대량생산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시계 브랜드가 과연 몇이나 있었는가? 오메가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하이엔드 기술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중이 그 가치를 누리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메가의 정수를 담은 글로벌마스터 애크시얼 컬렉션

오메가는 브랜드의 모든 가치를 담아 6개의 새로운 마스터 크로노미터 무브먼트를 장착한 제품을 선보였다. 올해 바젤월드에서 첫선을 보인 글로벌마스터 크로노미터 애크시얼 컬렉션 워치다. 글로벌마스터 컬렉션은 지난

해 오메가가 메타스와 함께 더욱 까다로운 인증을 제안하며 그 기준으로 선보인 컬렉션이다. 세계 최초의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시계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시계라 할 수 있다. 케이스 사이즈가 기존 39mm에서 41mm로 커졌고, 천문대가 새겨진 12각 파이렌 다이얼에서 영감을 받은 다이얼이 인상적이다. 폴리싱 처리한 시침과 분침은 블루 컬러이며, 역시 블루 컬러인 인덱스는 야광으로 코팅되어 있다. 빛에 따라 달라지는 다이얼의 전체적인 효과가 눈길을 사로잡으며 스테인리스 스틸 폴딩 클래프를 장착한 레더 스트랩 또한 블루 컬러로 일관성을 유지했다. 지난해와 비슷하게 이번 케이스 역시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루어져 있고 폴리싱한 베젤은 스크래치 방지 탄화 티ング스 소재다.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922를 장착해, 메타스의 여덟 가지 집중 테스트를 통과한 시계에만 주어지는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서와 함께 제공된다. 마스터 크로노미터의 새로운 모델인 스피드마스터 문패즈 역시 주목할 만한 제품이다. 공식 인증과 혁신에 더불어 뛰어난 고해상도 달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문패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주 비행사의 왼쪽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 오메가만이 표현할 수 있는 워치와 여부가 느껴지는 제품으로 소장 가치가 높다. 써마스터 플래닛 오션 43.50mm GMT 역시 메타스의 기준에 부합하는 보다 향상된 성능을 담았다. 세드나 골드와 리퀴드메탈 같은 혁신적인 소재를 이용한 것은 물론 폴리싱한 바이 세라믹으로 만든 흑백 베젤을 장착한 최초의 시계다. 이 새로운 모델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906으로 구동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메가는 바젤 월드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일구었고,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만 할 때 대중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면서도 스위스 시계의 본질을 잊지 않는 자세로 스위스 시계 시장을 지켜 나가고 있다. 판매율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시계 시장 자체의 기준을 높이고 더욱 매력적인 요소를 쌓아나가는 시계 브랜드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오메가의 가치이자 자서다. 문의 02-2141-7266

에디터 배미진/바젤 현지 취재

OMEGA



오메가 마스터 플래닛 오션 45.5mm 크로노그래프 오메가는 18k 세드나™ 골드와 블루 컬러 세라믹 다이얼이 조화를 이루는 시계 마스터 플래닛 오션 45.5mm 크로노그래프를 소개한다. 까다로운 오메가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오메가 마스터 크로노미터 9300을 탑재했으며, 스크류-인 케이스 백을 통해 감상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문의 02-511-5797

BOUCHERON



부쉐론 리플레 블루 드 조드푸르 부쉐론은 인도의 도시 조드푸르에서 받은 영감으로 탄생한 시계 리플레 블루 드 조드푸르를 선보인다. 부쉐론의 대표 모델인 리플레를 재해석한 것으로, 블루 사파이어, 어벤추린, 대리석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조드푸르의 신비로운 매력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문의 02-3213-2246

CHRONOSWISS



크로노스위스 시리우스 플라잉 레귤레이터 크로노스위스는 독창적인 다이얼이 돋보이는 '시리우스 플라잉 레귤레이터'를 선보인다. 시, 분, 초를 각각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의 레귤레이터 다이얼을 손목시계에 접목한 것이 특징. 레귤레이터 서브 다이얼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입체감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문의 02-310-1737

TISSOT



티쏘 트래디션 오토매틱 오픈 하트 티쏘는 무브먼트를 살짝 드러낸 디자인이 돋보이는 남성용 시계 '트래디션 오토매틱 오픈 하트'를 공개했다. 12시 방향에 스킵레톤 형식의 디테일을 추가한 것이 특징. 얇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완성한 케이스가 클래식한 매력을 선사한다. 문의 02-3467-8795

HERMÈS



에르메스 슬림 데르메스 에-펠 그랑 푸 에르메스는 절제미와 에르메스의 뛰어난 기술력을 담은 타임피스 슬림 데르메스 에-펠 그랑 푸를 선보인다. 몇 차례에 걸쳐 바르고 굵은 과정을 반복하는 그랑 피 에-펠링 테크닉으로 세밀하게 완성한 다이얼을 적용해 깨끗하면서도 순수한 느낌을 준다. 문의 02-3015-3281

CHANEL



샤넬 무슈 드 샤넬 샤넬은 유려한 라운드 디자인과 독보적인 기술력이 결합된 남성용 시계 '무슈 드 샤넬'을 선보인다. 샤넬에서 자체 제작한 첫 번째 하이 워치메이킹 무브먼트인 칼리버 1을 장착한 것이 특징. 하이 컴플리케이션 기능 중 하나인 레트로그레이드 마닛을 탑재해 워치메이커로서의 위용을 드러냈다. 올해 3백 장만 한정 생산하며, 베이지 골드와 화이트 골드 모델로 구성된다. 문의 02-3442-0962

BVLGARI



불가리 옥토파니모 마닛 리피터 불가리는 세상에서 가장 얇은 마닛 리피터 시계 '옥토파니모 마닛 리피터'를 공개했다. 간결한 팔각 형태가 돋보이는 이 시계는 3.12mm의 BVL 칼리버 362를 포함해 극도로 얇은 6.85mm 케이스가 특징이다. 50피스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문의 02-2056-0171

MIDO



미도 멀티포트 크로노그래프 어드벤처 미도는 아웃도어 활동에 완벽한 파트너가 되자 시계 '멀티포트 크로노그래프 어드벤처'를 소개한다. 44mm의 콤팩트한 다이얼은 PVD 가공 스틸 케이스로 제작해 큰 충격에도 끄떡없는 견고함을 자랑한다. 송이자가족 스트랩으로 러프한 멋을 실었다. 문의 02-3149-9599

BLANCPAIN



블랑팡 발레레 에뉴얼 캘린더 GMT 블랑팡은 에뉴얼 캘린더 모델 중 최초로 선보이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발레레 에뉴얼 캘린더 GMT'를 소개한다. 셀프와 인딩 무브먼트 6054F를 탑재해 1년에 단 한 번만 날짜를 맞추면 별도의 조정 없이 자동으로 날짜를 계산해 표시하는 기능을 갖췄다. 문의 02-6905-3367

HAMILTON



해밀턴 브로드웨이 오토 데이-데이트 42mm 해밀턴은 도화적인 느낌의 시계 '브로드웨이 오토 데이-데이트 42mm'를 선보인다. 60~80시각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이 시계는 도시 감성을 담아 디자인되었다. 디자인이 간결한 케이스와 다이얼 중앙을 가로지르는 라인 이세련된 멋을 지닌다. 문의 02-3149-9593

HUBLOT



우블로 빅뱅 메가-10 10데이즈 파워 리저브 우블로는 구조적인 디자인이 강인한 매력을 발산하는 남성용 시계 빅뱅 메가-10 10데이즈 파워 리저브를 소개한다. 우블로 인하우스 매뉴팩처에서 개발한 기계식 핸드 와인딩 스켈레톤 무브먼트를 탑재해 10일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문의 02-2118-6208

PATEK PHILIPPE



파텍 필립 월드 타임 크로노그래프 Ref. 5930 파텍 필립은 24개 도시의 시간을 담아낸 시계 '월드 타임 크로노그래프 Ref. 5930'을 공개했다. 크로노그래프 시계의 새로운 역사를 쓸 모델로, 수평형 클러치가 장착된 수동 와인딩과 세계에서 가장 얇은 스톱-세컨즈 크로노그래프를 탑재했다. 문의 02-2118-6030

SWAROVSKI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린 아워스 스위로브스키는 브랜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여성용 오토매틱 워치 '크리스탈린 아워스'를 출시한다. 유명 워치 디자이너 에릭 지로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이 시계는 동근 투영 케이스 인을 약 4천 개의 크리스탈로 장식해 은하수처럼 빛나는 광채를 발산한다. 문의 1661-9060

FENDI



펜디 폴리크로미아 펜디는 세계적인 주얼리 디자이너 펠리나 델레트레즈 펜디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폴리크로미아'를 선보인다. 다양한 소재와 컬러의 조합이 돋보이는 독창적인 비대칭 베젤이 유니크한 매력을 부각한다. 그린 컬러 자개, 블루 컬러 자개 2가지 버전으로 구성되며, 한정판으로 출시한다. 문의 02-3284-1300

RADO



라도 트루 오픈 하트 라도는 가벼움(lightness)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타임피스 '트루 오픈 하트'를 공개했다. 2016 바젤월드에서 공개한 이 시계는 0.2mm의 얇은 자개 다이얼로 은은함과 가벼운 착용감을 선사한다. 매드한 무궁 불꽃과 깨끗한 느낌을 주는 유광 화이트 버전으로 선보인다. 문의 02-2639-1964

BREGUET



브레게 트래디션 마닛 리피터 투르비용 7087 브레게는 소리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트래디션 마닛 리피터 투르비용 7087'을 공개했다.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완성한 6개의 새로운 특허 기술과 성능으로 최상의 소리를 구현했다. 18k 로즈 골드와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 버전으로 출시한다. 문의 02-3438-6218

GRAFF



그라프 프린세스 버터플라이 그라프는 아름다운 나비의 형상을 표현한 주얼리 워치 '프린세스 버터플라이'를 소개한다. 화이트와 옐로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등으로 채운 나비 모티프가 눈부신 광채를 선사하며, 나비 형상 아래에는 머더오브럴 다이얼의 시계가 자리 잡고 있다. 문의 02-2256-6810

LONGINES



론진 돌체 비타 론진은 우아한 매력이 돋보이는 시계 '돌체 비타'의 로즈 골드 & 스틸 소재 버전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탈리아의 달콤한 삶에서 영감을 받은 시계로, 로즈 골드와 스틸 소재의 조화와 케이스에 세팅한 다이아몬드의 조우가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매력을 극대화한다. 문의 02-3149-9532

GIRARD-PERREGAUX



자르드 페리고 라 에스메랄다 투르비용 자르드 페리고는 창립 2백25주년을 맞아 새롭게 선보인 '라 에스메랄다 투르비용'을 출시한다. 파인 워치메이킹의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제작한 스리 브리지 투르비용 칼리버를 탑재했다. 화살을 연상케 하는 3개의 브리지가 완벽한 균형미를 선사한다. 문의 02-3467-8372

CALVIN KLEIN



캘빈클라인 캘빈클라인 뉴 미니얼 캘빈클라인은 브랜드의 정수인 미니멀리즘을 보여주는 유니섹스 시계 '캘빈클라인 뉴 미니얼'을 선보인다. 캘빈클라인 2016 S/S 컬렉션의 테마인 네오 미니멀리즘을 반영한 타임피스로, 가벼운 무게와 스타일에 구애받지 않는 심플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문의 02-3149-9563